遣聞録 二

共三

젼한국 권지이

쳥음다 두희볼이 흉형에 되더니 계희 기욕
ᄒᆞ에 지 대병을 님봉ᄒᆞ니 쳥음이 뵈 셔글 사쳐
국연 경희가 셩북ᄒᆞ고 쳐ᄒᆞ니 살음이 다 말여
글오희 이셔 리 곳의가 올미 감지 아니라 ᄒᆞ니 쳥
음이 글오희 두의 형원 님봉ᄒᆞ미 악덕이 아니라
블라 탐쳔나세 ᄒᆞ야 ᄒᆞ셔 셔로 국지 못ᄒᆞ미라
사라실쇄 빈국으로 형의 젹국젹ᄒᆞ여시나 국을오
의 직쳑이 올을의 엽ᄉᆞ나 임의 올지 아니ᄒᆞᆫ 국가을
ᄅᆞ북ᄒᆞ미 마지 못ᄒᆞᆯ 일이라 ᄒᆞ여라

홍모 신ᄆᆞᆨ의 돌쳐익의 옥ᄉᆞ의 길ᄉᆞᆫ 연ᄂᆞᆫ이 졍오ᄒᆞ으
로연인ᄒᆞᆯ 여ᄃᆞ라가 합새 죽이로쇠 나아갈 시찬ᄒᆞᆫ 관
이쳔이 쇼ᄒᆞᆯ 연인ᄒᆞᆯ 여ᄉᆞᆯ ᄉᆞᆯ 긔집이 독셕의 화
를 기ᄃᆞ리ᄉᆡ 지신 대오와 예ᄉᆡ 한쳔이 입문ᄒᆞᆯ
갈 ᄀᆞ치 날여 글오ᄉᆡ 식ᄒᆞᆼ을 착ᄒᆞ야 살ᄂᆞᆫ이라 발ᄒᆞ시
러ᄃᆞᆯ 글 중독의 지치여 ᄯᅡ시되 ᄃᆞᆫᄒᆞᆯ 쇼ᄅᆞ오ᄉᆡ 신
둥이 화ᄅᆞᆯ 면치 못ᄒᆞ면 현ᄅᆞᄅᆞᆯ 자히 미치도ᄒᆞ되
란ᄒᆞ여ᄂᆡ 옥ᄉᆡ 모ᄅᆞ되 일ᄒᆞᆷ도 년수 ᄒᆞ미 어렵ᄂᆡ
내 슈셜을 보ᄂᆡ 양ᄌᆞ 독이 ᄂᆡ비의 ᄒᆡᆼ을 ᄲᆡᄉᆞᆯ
화를 면치 못ᄒᆞᆯ ᄂᆞᆯ 알ᄂᆞᆫ 중샤 ᄌᆞ옥 ᄒᆞ야 ᄆᆞᄅᆞ되

ᄌᆞ와ᄉᆞ랑ᄒᆞ기의 나ᄒᆞᆯᄉᆞᄒᆞ여나 만일 주ᄒᆞᆼ을 ᄒᆞ
여든 조심ᄒᆞ기를 신즁치 ᄒᆞ면 화를 면ᄒᆞᆯ 줄
엇지 알니오 신즁이 즐ᄒᆞ되 셩ᄌᆞᆫ 의구ᄒᆞᆫ즁이 만
ᄉᆞᄒᆞ야 ᄌᆞ로ᄊᆡ뢰
ᄉᆞ일을 주셩ᄒᆞ게시
아셩 영환 계명시
신명ᄉᆞ부으외리
ᄒᆞᆫᄌᆞᄒᆞᆼ외ᄇᆞᆯ즉ᄌᆞ리
ᄃᆞᄌᆞᄒᆞᆼ을 ᄆᆞ지명쇠
ᄉᆞᆷᄉᆞᆫ 즉ᄌᆞᆼ

졍여시ᄉᆞᆯᄂᆞᆯ의 가벙을 ᄌᆞᄒᆞ야 네와 시ᄌᆞᆯ 빈ᄒᆞᄂᆞ니
아셩 영환이 보ᄂᆞᆫ시 졀ᄒᆞᆫ 글 ᄆᆞᆺ ᄃᆞᆺ다
끔ᄌᆞ 일ᄉᆞᆷ은 ᄉᆞᆫ 즈ᄉᆞᆫ쇠을 외리ᄒᆞ을 쇽회보젼ᄒᆞᆯ
ᄒᆞᆫᄌᆞᆯ ᄒᆞᆫ 상ᄌᆞ기를 ᄆᆞ즈ᄃᆡ 부즉의 허희 리ᄒᆞ다
매아지들이 무즉 명을 아ᄂᆞᆯ 나희 넘 우니
ᄉᆞ매드러 ᄌᆞᆯ두이 이되지ᄇᆞᆯ을 ᄂᆞᆼ희 ᄒᆞᄌᆞ아희게 ᄌᆞᄒᆞ여ᄒᆞ다

영주 무젹 옥작주
셕홍 금주 ᄌᆞᄌᆞ주
영주 ᄯᆞᆯ주 졔목이 오히려 어ᄭᅬ ᄒᆞᄂᆞ니
쇠홀 ᄌᆞᆫ들이 ᄎᆞ졀ᄒᆞ엽시 ᄒᆞ여라
ᄌᆞᆷᄌᆞ 드리오ᄂᆞᆫ도다
ᄒᆞ시니 대새 ᄒᆞᆫ신ᄒᆞᆷ을 긔히어 기시지라 셜ᄒᆞᆼ이 어
ᄉᆞᄒᆞᆼ오신 영주 ᄯᆞᆯᄌᆞ시 ᄒᆞᆫ칠ᄒᆞᆫ이이셔 식ᄒᆞᆼ이 졔목 ᄲᅢᆺ던
ᄌᆞᆯ 말재 귀의 미ᄎᆞ시라
욱ᄎᆞᆷ관 지ᄂᆞᆯ 희ᄎᆞᆼ의 무ᄃᆞᆨ즁 아ᄎᆞᆷ이오 무ᄉᆞᆼ의ᄎᆞᆼ이라
ᄌᆞᆼᄋᆞᆼ 니보상ᄌᆞ를 어보려 다 ᄯᅳᆯ쳐이셔 일ᄎᆞᆨ 즙례ᄒᆞ
야 도령의 동양ᄒᆞᆯᄉᆡ 젼서이 명ᄃᆞᆨᄒᆞᆷ을 ᄂᆞᆷ의 ᄀᆞᆺ차
되 어니 ᄒᆞᄂᆞ니 크게 ᄌᆞ탄의 ᄎᆞᆨ양ᄒᆞ믈 배되되 김ᄐᆞᆯ셔
시ᄋᆞᆼ이 ᄒᆞᆯᄉᆞ롤 오래 이 ᄌᆞᄌᆞ의 복이 아니라 ᄒᆞᆫ연주

뎨 ᄎᆞᆷ박ᄒᆞ야 분뢰쳑은 음ᄉᆞᆼᄒᆞ야 집물을 노우미 ᄒᆞᆫ
거ᄉᆞᆯ 이 샹ᄉᆞᆯ이 일ᄉᆞᆨ 나라ᄒᆞ니 국가의 ᄯᅳᆺ이 미뢰ᄒᆞ니와
ᄒᆞᆨ의 이지외ᄅᆞᆯ 당ᄒᆞᆯ재 다 일ᄂᆞᆫ빅 거악ᄒᆞᆯ 집분
이 ᄭᅳᆺ미ᄎᆞᆷ을 셩ᄌᆞᆨ지 아니ᄒᆞᆯ 다ᄆᆞᆫ 븡을 쳥ᄒᆞᆫ의
일외ᄅᆞ쳐ᄒᆞ야 ᄌᆞᆼᄒᆞᆫ을 재최ᄒᆞ야 도ᄋᆞ아 국진ᄒᆞᆫ다
ᄒᆞᆫ면 귀 능히 국형세ᄅᆞᆯ ᄆᆞᆨ어 오ᄅᆞᆯ 길ᄐᆞᆨ셔ᄅᆞᆯ
명셩왕후 빅뢰라 ᄒᆞᆼ명강재ᄒᆞᆯ 라ᄌᆞᆷᄒᆞ야 ᄉᆞ긔
업ᄂᆞ니 변ᄉᆞᆯ을 당ᄒᆞᆯ 일을 년ᄒᆞ야 승목이 쳔ᄅᆞᆯ연
ᄒᆞᆫ셔 ᄃᆞᆨ혀이 외ᄃᆞᆼᄒᆞᆫ뢰 나ᄃᆞᆫ졍 ᄒᆞᆫ뢰 ᄒᆞᆯᄃᆞᆯ오뢰
이샹ᄉᆞᆯᄋᆞᆫ 긔ᄋᆞᆫ 비ᄒᆞᆨ 옥ᄎᆞᆷ녀의이셔ᄅᆞᆯ 반ᄃᆞ시 하ᄉᆞᆫ최

아니되니 부모ᄉᆡᆼ존의 자최 어ᄂᆞ일이 업서니와 ᄒᆞᆫ세
의 이지위를 당ᄒᆞᄂᆞᆫ재 저보이 미치ᄂᆞᆫ 것을 시세
굿지아니ᄒᆞᆷ을 모로ᄂᆞᆫ 다만 김ᄒᆞᆷ을 ᄲᅢ ᄃᆞ시를 쓰아 발ᄂᆞ
시ᄒᆞ옵ᄂᆞᆫ 굿치 ᄃᆞ회를 보셔ᄒᆞ면 ᄌᆞᄂᆞᆫ 일의 김ᄒᆞᆷ의
국ᄌᆞ의 효통ᄒᆞ미 하ᄂᆞᆯ이 발ᄒᆞ시 국례를 되ᄂᆞᆯ
우ᄅᆞᆷ이 되리라ᄒᆞ여다 김ᄒᆞᆷ이 혈로시회의 홀
ᄒᆞ니 시를 통촉이라ᄒᆞᆯ 부령빈향ᄒᆞ다
박탈져 정은 내 셜ᄂᆞᆫ 익헌ᄒᆞ 동잡이라 오시의 홀
ᄒᆞ의 홍인을 졀ᄒᆞ야 빙세치 못ᄒᆞ여셔 죄예ᄉ
질ᄒᆞᆯ 어여 다시 사니 ᄒᆞᆨ녀ᄒᆞ오리 ᄒᆞᆨ ᄃᆞᄒᆞ글 병을

일홈야 꼿보란ᄒᆞ니 쳔의박흥의 ᄃᆡ인이 하셰ᄒᆞ
시지라 빅시 ᄀᆞᆺ당의 ᄀᆞᆫ야 ᄀᆞᆯ오ᄃᆡ 다ᄅᆞᆯ ᄀᆞ의 구
ᄒᆞᆫ사이라 박흥이 ᄀᆞᆯ오ᄃᆡ 두ᄅᆞᆫ 보기ᄅᆞᆯ 하ᄂᆞᆯ이오
그러아니라 ᄉᆞ졍안해ᄅᆞᆯ 오히려 ᄒᆞᆯ자치ᄅᆞᆯ 살녀니와
살ᄅᆞᆫ이 신이 업ᄉᆞ면 셰상의 셔지 못ᄒᆞ리라ᄒᆞ니 빅
시 ᄀᆞᆯ ᄆᆞᆯ의 득이 어쳐 허ᄒᆞ여 어니 미ᄉᆞ 합ᄒᆞᆯ ᄒᆞᆯᄃᆡ
흔이 실ᄂᆞᆫ 꼿보지 어니ᄒᆞ니 대쇄 원ᄉᆞ의 지ᄇᆞᆸ 살ᄅᆞᆫ의
박쟉ᄒᆞᆫ이 되미어다 박흥이 ᄯᅡ여 일ᄋᆞᆫ의ᄉᆞ 호
꼿셰ᄉᆞ의 ᄌᆞᆯᄒᆞᆫ니 쳐 ᄌᆞᆨ십이어다
당회 ᄃᆞᆯ의 오형의 ᄂᆞᆯ이 크게 열ᄅᆞ여 ᄒᆞᄃᆡ 이용ᄉᆞ

ᄒᆞ매 인ᄌᆞᄂᆞᆫ 비ᄇᆡ 받ᄌᆞ올 덕이 업ᄉᆞ와 외ᄅᆞᆷᄒᆞ니 어올
지라 동양의 신ᄌᆞ의 총 최되ᄂᆞᆫ이 시ᄒᆞ올라 일ᄌᆞᆫ
이 이셔 본인의 서리미 되어ᄉᆞ니 일ᄉᆞᆫ의 받ᄌᆞ와 신
효와 방의 독ᄎᆞᆨᄒᆞ올ᄂᆞᆫ 인 ᄒᆞ올ᄉᆞ의 지엄ᄒᆞ이 부ᄎᆞᆨᄒᆞᆯ
비 받ᄌᆞ올 리ᄉᆞᆫᄂᆞᆫ 치 독ᄎᆞᆨᄒᆞ올 재이시라 낭재라 황ᄋᆞᆯ
두려 감히 말ᄉᆞᆷ을 못ᄒᆞ옵더니 이제 ᄇᆞᆯ령ᄒᆞ시ᄆᆞᆯ 승
ᄉᆞ졍 공ᄉᆞᆷ을 ᄎᆡᆨᄒᆞ여 ᄒᆞ옵되 노족의 의ᄉᆞᆷ을 뵈려ᄒᆞ지
아니치 못ᄒᆞ와 ᄃᆞᆫᄉᆞ올 실ᄉᆞᆼ을 ᄒᆞ오ᄃᆡ 종ᄉᆞᆼ을 ᄒᆞ여ᄉᆞᆫ
불ᄎᆞᆨᄒᆞᆫ 비 받게 ᄒᆞ이 국에 ᄂᆞᆫ ᄉᆡᆼ의 ᄒᆡ로ᄋᆞᆷ이라 이저
물 망옥 ᄒᆞ여ᄂᆞ니 어지자 ᄒᆞ을와 천ᄋᆞᆷ을 최망ᄒᆞ

리오ᄒᆞ야 거ᄂᆞᆯ을 ᄉᆞᆯ펴보ᄂᆞᆫ을 쇠음ᄂᆞᆯ치 ᄒᆞ니 방ᄒᆞ의
되서 ᄀᆞ지아니ᄒᆞ미 이ᄀᆞᆺ더라 거ᄂᆞᆫ의 ᄒᆞᆯ 리ᄀᆞ이라
ᄒᆞ니 시칩이 세상의 힝ᄒᆞᄂᆞ니라 병ᄒᆞᄂᆞᆫ의 ᄒᆞᆫ셩
이 강ᄒᆞᆫᄇᆡᆨ즁셩 랑ᄃᆞᆫ아다 병ᄒᆞᆯ리ᄒᆞ여 ᄒᆞᆯ디
장ᄎᆞ 가히 ᄉᆞ이ᄒᆞᆯ ᄉᆡᆼ을 ᄀᆞᆯ히니 긴쳥오ᄅᆞᆯ 뎡치 ᄌᆞ아
ᄃᆞᆯ셩징으로 감찰ᄒᆞᆯ 샹ᄋᆞᆯ ᄌᆞᆨ흘 ᄒᆞᆫᄒᆞ여 ᄒᆞᆯᄉᆞ치
ᄀᆞᆯ 셩의 드러ᄒᆞ니 셩이 ᄒᆞᆫᄃᆞᆫᄒᆞ여 긴증의 ᄒᆞᆸᄋᆞᆯ 이화
바ᄃᆞ미 참ᄒᆞ옥 ᄒᆞᆯ 경징이 ᄉᆞᆺ실ᄒᆞᆫ ᄇᆡᆨ 슈ᄒᆞ니
긴증이 쇠음의 강ᄒᆞᆫᄇᆡᆨ 보졍ᄒᆞᆯ ᄒᆞᆫᄂᆞᆯ 삼ᄂᆞᆫ니
ᄃᆞᄅᆞᆯᄒᆞ여 ᄎᆞᆷ회ᄒᆞᆯ ᄀᆞᆸ몽이 되니 ᄯᅡᆨ이ᄅᆞᆯ 긴증으로 ᄒᆞᆫ

여ᄂᆞᆫ ᄒᆞᆫ잘ᄒᆞ지 ᄉᆞᄉᆡᆼ을 하ᄂᆞᆯ의 ᄇᆞᆨ쳔들 하
ᄂᆞᆯ이 ᄀᆞᆮᄒᆞ여 ᄌᆞᆼ이치어ᄂᆞᆯ셔시오 베ᄎᆞᆨ ᄌᆞᆼᄀᆞᆫ나 그ᄃᆡ의
ᄌᆞᆨ은다 감ᄆᆞᆺᄌᆞᆨᄉᆞ의 ᄌᆞᆨ기 여러ᄒᆞᆫ회오 ᄒᆞᆫᄆᆞᆫ무ᄅᆞᆯ
의 혼ᄭᅬ ᄒᆞᆯᄌᆞᆼ의셔사 ᄒᆞᆯᄎᆡᆺ셔온 시ᄇᆞᆯ이시되
ᄌᆞ시이오히려 ᄌᆞᆼᄉᆞ의셩쳬 ᄂᆞᆷ을 ᄀᆞ심ᄒᆞ여ᄂᆞ니 일
ᄉᆡᆼ은 셩양ᄂᆞ샹ᄉᆞᆨ이 쿠비를 무ᄅᆞᆸ빠 내 셩ᄉᆞᆼ을
ᄂᆞᆯᄂᆞ시 ᄃᆞᆯᄂᆞᆯ셔의 회ᄉᆞ막연ᄒᆞ야 셩ᄉᆞ되무
러ᄅᆞᆯ오릐 ᄒᆞᆯᄌᆞᆼ의ᄉᆞᆼ이아ᄅᆞᆯ을ᄂᆞᄂᆞᆼᄂᆞ이라ᄒᆞᄂᆞ
어지라혼ᄋᆡ치어ᄂᆞ되오 셩ᄉᆞ이ᄅᆞᆯ오릐 이반ᄃᆞ시 허
언이다 진실노 이셩으ᄅᆞᆯ이어시면 ᄌᆞᆼᄉᆞ이 기ᄉᆞᆼ우리

도셔시믈 거시슬셰 도지도ᄉᆞᆼ호여도다 영ᄋᆞᆼ이 악셕이
착ᄒᆡ 낙막ᄒᆞ야 도라가니 외도의 외숙ᄒᆞ미 이어늣
ᄒᆞ니 가히 본ᄇᆞ들슉ᄒᆞ도도다 죵슉ᄉᆞ예 쇠ᄉᆞ빈이시라
나할ᄉᆞ 호외ᄂᆞᆫ 니ᄅᆞ잔ᄂᆞᆫ 힝인지라 부졔ᄒᆞᆨ 힝우의
대인이라 낭셔라 효칠ᄒᆞ죄 담슉ᄒᆞ미 노예ᄉᆞ다
쿡지어사 생힘경계ᄒᆞ야 ᄒᆞᆯ오되 빈잔ᄋᆞᆯ라ᄌᆞ가이
말ᄉᆞᆷ나 ᄒᆞ더니 일ᄋᆞᆫ ᄒᆞᆯ셰 생이 술을 ᄉᆞ지ᄂᆞᆫ 부졔ᄒᆞᆨ
지ᄇᆞ의와 더ᄇᆞ러 ᄆᆞᆨ을셔 ᄐᆞᆯ셔ᄂᆞᆯ 졔ᄒᆞᆨ을 ᄀᆞᆼ으로 블
버ᄋᆞ와ᄒᆞ야 너ᄒᆞᆯ의 생ᄋᆞ로ᄀᆞᆯ 쓰어ᄇᆞ지ᄅᆞᆯ 장ᄋᆞ로 ᄒᆞᆯ
셔 그쳐 생이 그치기ᄅᆞᆯ 비ᄅᆞᆯ 그쳐ᄒᆞ야 ᄒᆞ야 ᄌᆞ지ᄅᆞᆯ와다

ᄃᆞᄅᆞ셔 ᄒᆞᆼ이 ᄀᆞ왈 안ᄌᆞ신 샹이 ᄭᅩᄅᆞᆯ ᄒᆞᆫ 닐ᄋᆞ셔ᄃᆞ라ᄒᆞᆫ
나ᄐᆡ셔 대셩왈 너ᄒᆞᆯ이 내 ᄯᆞᆯ을 어ᄃᆡ ᄒᆞᆯ ᄒᆞᆯ 되 리
ᄂᆞ니 ᄀᆞ신 샹을 ᄃᆞᆼ올ᄂᆞᆫ 아비가 업ᄉᆞ나 ᄀᆞ신 샹이 셩회
ᄒᆞ야 감히 ᄆᆞᆺᄃᆞ러 잔ᄂᆞᆫ 박ᄃᆞᆯ ᄌᆞᄅᆞᆷ ᄃᆞ라가니 설빈 ᄀᆞ혜
의게 엄츅ᄒᆞ미 이러ᄐᆞᆺ ᄒᆞ더라
김ᄒᆞᆨᄉᆞ 셰셔ᄂᆞᆫ이 뎡ᄇᆞ닌의 혜찰ᄒᆞᆷ이 되여 ᄒᆞᆫ돈의
갓다가 진의이셔 승ᄒᆞᆼᄒᆞᆫ ᄂᆞᄂᆞᆫ의 상ᄒᆞᄅᆞᄅᆞᆯ 역
ᄯᆞᄅᆞᆷ 부상ᄒᆞ엿더니 ᄒᆞᆨ의 졀ᄂᆞᆫ의 의망ᄒᆞ니 김상국
ᄒᆞᆨ이 역ᄯᆞᆫᄃᆞᄂᆞᆯ ᄆᆞᆨ을되 김ᄒᆞᆨᄉᆞ 시양이 귀ᄒᆞᆼᄒᆞᆫ
야 ᄒᆞᆯ오ᄃᆡ 셰셔ᄂᆞᆫ이 봉명ᄒᆞ야 박외이셔 ᄉᆞᄯᆞᄅᆞᆯ ᄀᆞᆺ치

아ᄂᆞ시니 부샹을 ᄭᅦ여 만ᄃᆞᆫ 부ᄌᆞ이 ᄒᆞᆫ배니 용샤
치 아니미 엇지 신ᄃᆞᄒᆞ오리오 ᄀᆞᆷ샹ᄌᆞ이 내 셩ᄌᆞ의ᄅᆞᆯ어
ᄅᆞ오되 내 소시의 ᄂᆞᆫ히 셩ᄉᆞᆨ지 못ᄒᆞ올 ᄉᆞ회ᄒᆞ의ᄃᆞᄒᆞ
나 이제 나흘어 ᄎᆞᄌᆞ회ᄒᆞᄂᆞᆯ ᄆᆞᆺ지 아니ᄒᆞ리ᄒᆞ더다
왕형니 샹ᄌᆞ이 ᄒᆞᆯ 왼ᄃᆞ신 샹ᄉᆞ셔 날어 ᄅᆞ오되 ᄒᆞᆯ
셩ᄌᆞ을 심ᄃᆞ쳥이 밧ᄃᆞ여 ᄉᆞ인될 념에 여ᄉᆞ나 왼되 ᄅᆞ오되
내 비록 ᄌᆞ인의 미치ᄃᆞ 못ᄒᆞ나 엇지 ᄆᆞᄃᆞᄃᆞ ᄉᆞ인될 념에
이시리오 왕형이 ᄅᆞ오되 ᄌᆞ러치 아니ᄒᆞ다 녕인 옹의 강간
ᄒᆞ미 세샹의 비길 ᄃᆡ 업ᄉᆞ니 ᄌᆞ 명ᄒᆞ을 셩의 긔쳬ᄆᆞ
ᄒᆞ의 찬ᄃᆞ셥ᄒᆞ여 시되다 날어 시리오 마ᄂᆞᆫ ᄌᆞᄃᆞ히 ᄂᆞᆫ 뉴ᄅᆞ

싀ᄆᆞᄋᆞᆷ여 미ᄎᆡ도 봉우ᄅᆞᆯ ᄇᆞ리셔 ᄌᆞ결ᄒᆞᆫ 즁에ᄂᆞᆫ 알희셔
븟ᄃᆞᄅᆞ아 ᄆᆞᄋᆞᆷ디 혜ᄆᆞ쳥ᄒᆞ고 샹ᄉᆞᄅᆞᆯ 올여 구섭
지셩의 ᄃᆞ시 북혐ᄋᆞᆯ ᄒᆞ니 그러ᄂᆞᆯ 나ᄂᆞᆫ 신쳥이 ᄇᆞᆯ셔
영ᄒᆞᆷ치 못ᄒᆞᆯ가 두리온 념예ᄅᆞᆯ 니지 못ᄒᆞᄂᆞᆫ단ᄒᆞ
니 븩샹니 샹ᄉᆞ속 경에 일ᄉᆞᆨ 이ᄯᆞᆯ을 ᄂᆞᆯ 사ᄅᆞᄂᆞᆫᄃᆞ여 날
너ᄅᆞᆯ 오ᄅᆞ리 완영의 ᄒᆞᆷ부ᄒᆞ야 ᄒᆞᆼ셔 눈ᄒᆞᄂᆞᆫᄅᆞᆨ 더욱 어ᄂᆞᆫᄒᆞ니고
맛셔의 부쳔ᄒᆞᄂᆞᆯ 사ᄒᆡ 알니라 ᄒᆞ여라 강빈의 아
ᄃᆞᆯ 탁셔 민셰 쳥영의 신여 쳔ᄒᆞ셔 니ᄅᆞ더라
이로 뎡ᄒᆞ족의 화ᄅᆞᆯ ᄒᆞ옥시ᄅᆞᆯ 우의 계속 댱ᄒᆞᆼ을 긔복
ᄒᆞ야 우의 쳥ᄋᆞᆯ 빈ᄒᆞ니 댱ᄉᆞᆼ이 ᄯᅴ의 안샥ᄆᆞᆯ 하의셔

여러번샹소ᄅᆞᆯ 나치아니ᄒᆞ니 샹이능지ᄅᆞᆯ보리샤
의리ᄅᆞᆯ 지우ᄒᆞ실시 김샹국호이 셜우ᄌᆞᆨ라가 샹
지ᄅᆞᆯ베ᄃᆞᆯ 일ᄋᆞ야 ᄉᆞ어ᄒᆞ야 ᄅᆞ오리 내샹ᄋᆞᆼ을일
외셔 ᄒᆞᄃᆞᆯ벽 우희 명ᄅᆞᆯ발ᄅᆞ와시니 ᄒᆞᆼ을쥐ᄒᆞ
야 힝ᄉᆞᄒᆞᆷ이 비록 내ᄎᆡᆨ망이나 소쳥ᄋᆞᆯ니ᄅᆞ면 경
녀의 아직 병혁이 업ᄉᆞ니라ᄒᆞᆫ 샹이 독박ᄒᆞ시ᄃᆞᆯ
벽리ᄇᆞᆨ ᄒᆞ야 내티ᄂᆞ면 ᄒᆞ의게ᄂᆞᆫ미안ᄒᆞ니라ᄒᆞ니 셜
빈의 ᄉᆞᆯ긔ᄃᆞᆯ 더ᄋᆞᆯ ᄉᆞ랑ᄒᆞ미 이러ᄐᆞᆺᄒᆞ더라
권셕ᄌᆞ ᄐᆞᆯ이 일ᄌᆞᆨ 거쳐의 집의가 ᄎᆞᆺᄒᆞ야 ᄂᆞ어셔니
ᄂᆞᆨ희 ᄇᆞᆫ이 ᄆᆞ춤ᄋᆞ니 ᄌᆞ인이 셕ᄌᆞᄅᆞᆯ 차 니ᄅᆞ뎌ᄅᆞᆯ

오릭 불쌍ᄒᆞᆫ이 와ᄂᆞᆫ 우리 셕죵을 ᄂᆞᆯ외여 ᄎᆞ시
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네 ᄎᆞ희 붕이라 네 부귀 ᄆᆞᆯᄂᆞ뢰 ᄀᆞ셔
이에 니ᄅᆞ니 나라희 망ᄒᆞ면 네 집이 ᄯᅩ 망ᄒᆞᆯ 거시니
네 몸의 그 ᄀᆞᆯ희 못ᄒᆞᄂᆞ냐 ᄎᆡ 말이 업서 ᄎᆞᆷ연ᄒᆞ야
도라가니 살ᄅᆞᆷ이 셕죵의 ᄒᆡ 졀ᄒᆞ여 이에 말녀 어지아
녀자의 심ᄒᆞᆷ 어다 셕죵시화의 죽음을 ᄎᆞᆷ혹 쳔ᄒᆞᄂᆞ
ᄒᆞᆸ이 셔상셔 사ᄅᆞ니 대부의 ᄃᆞᆯ비 올ᄇᆞᆯ치ᄂᆞ라가
풀기ᄅᆞᆯ 쳥ᄒᆞ니 ᄎᆞ여 주시가 ᄉᆞᆼ을 좌킥의 운신을
더외쳐 아희ᄅᆞᆯ ᄌᆞ어ᄂᆞᆯ 우리 이름이 나희어되ᄂᆞ ᄂᆞᆫ희
궤어미 ᄒᆞᆫ양ᄒᆞᆯ ᄌᆞᄅᆞᆯ 쌀ᄃᆞᆯ 내ᄉᆞ랑ᄒᆞ도라ᄒᆞᄂᆞ 셰

의 대비셩승의셔시지라 대복이되믈도흥ᄒᆞᄂᆞᆫ줄
알노ᄒᆞ야 죄ᄌᆞ쳐ᄒᆞ올ᄉᆞ디 강오리ᄠᆞᆯᄂᆞᄂᆞ이셔글로
티임의궁안흘ᄌᆞ이일 ᄉᆞ형을주일주ᄒᆞ긔일이우티
를버서라ᄒᆞ되오ᄂᆞᄒᆞ야 긋친믈버든니 흐ᄂᆞ의궁올
숑샹ᄂᆞᆫ올화를득디지어니미 이저듯ᄒᆞ더라
당ᄒᆡ셔의 령일ᄒᆞᆼ이 우생ᄆᆞᆯ빅 환침쳔 풀어이셔
만흔이ᄅᆞ시ᄒᆞ여나 이죄인의 혜모ᄂᆞᆫ 발ᄒᆞ기를ᄃᆞᆼᄒᆞ
야 령혼제ᄅᆞᆯ 힘ᄡᅥ보존ᄒᆞᆫ줄 ᄉᆞ친ᄒᆞ쇠 인ᄌᆞᆼ은
도로혀 가히예ᄒᆞ엿ᄉᆞᆫ ᄒᆞ라ᄒᆞᄂᆞᆫ 샹ᄉᆞ를 올ᄂᆞᆫ
셰의인ᄌᆞᆼ의안흘이 혀앙을위ᄒᆞ야 션ᄌᆞ원이되

여어나 살롬이 ᄒᆞ영시글을 일흥흥의뜻의부쳐칠을오
리
칠근장생 회원길 칠근장생은 회원의부재오
빅연 중사 이천년권 빅연중사ᄂᆞᆫ 이천년의 주머리로다
승상의진 당막수 승상이 진니타흉을 죽이니 막탕이
열번 죽을거시어놀
난옥한수 오산년권 난옥흘부수일로산천원을흥여스니
회원은 동제의 취라 일흥흥이 불흘나흘오리 내 영흥흥
치무응의타흥어다 녕난설빈 이일흥흘최흥이보나
이셔 날흘서 나흘어다
녕무현흥 영다 나 칠서 녕흥화다 나 천은흥흥원이

ᄒᆞᆯᄌᆞ치ᄅᆞᆯ 대로회시ᄅᆞᆯ 보아 ᄒᆞᆼ쟝쳑도ᄅᆞ지ᄅᆞ샬 시란
이ᄒᆞ쟝시졀ᄒᆞ쟝을 우롱을 ᄇᆡᆨ로ᄒᆞ여ᄅᆞᆯ 오러니 거ᄌᆞ
의ᄀᆞᆯ쇠ᄒᆞ니 이ᄅᆞᆯ을 법바ᄃᆞ라 ᄒᆞ니 이ᄅᆞᆯ 니라셔의 지
우ᄇᆡ라 탈체입셕ᄒᆞᆫ을 알ᄅᆞᆯ 졀도무지ᄅᆞᆯ 쓸ᄅᆞᆷ이 업셔
졔우의 줄ᄅᆞᆯ ᄅᆞᆯ블 니병을 니ᄅᆞ어니 ᄅᆞ허이ᄅᆞᆯ
가질ᄃᆡ ᄒᆞ야 날오리 사ᄅᆞᆷ이 바ᄅᆞ시 날을 ᄌᆞᆫ되게 ᄒᆞ리
ᄒᆞ라 의심ᄒᆞ더니 가히 ᄒᆞᆯᄌᆞ치ᄅᆞᆯ 알지 못ᄒᆞ리라 ᄒᆞ니
니졍ᄒᆞᆫ이 ᄅᆞ오리 날ᄅᆞᆯ 도무지ᄅᆞᆯ 이ᄅᆞ지 못ᄒᆞ리라 ᄒᆞᆯ ᄯᅢ
ᄒᆞ야 가니 탈체ᄒᆞᆯ연이 ᄒᆞᆯ자 안자라가 나오니 셜텬의
현ᄃᆡ의ᄅᆞᆯ 벗니 ᄒᆞᆫ 븐을 ᄅᆞ히ᄒᆞ미 이러ᄐᆞᆺ ᄒᆞ더라

원두셔 생이 살두셔 나흘셔라
중세병ᄒᆞ나의 잠활을 흥흥ᄒᆞ여ᄉᆞ라가 이외 성
의두되시는날의 갈두빈을 잡어 뎌던니 중쳐 형쳐
장외 글을 범치 아니시던 글 명난의 실니여 두라가 지
리 삼중의 직딕칠 두어 흥신두록 나치 아나 일은 신
ᄉᆞ의 졸ᄒᆞ라
영아의 흥중은 북능의 빈이라 일솔두 부룰 병을 두셔
말ᄒᆞ야 흥ᄒᆞ외 삼을의 빈뷔 각부를 어이시니 군ᄃᆞᆯ
어지못ᄒᆞ느재 주ᄒᆞ여 지화를 ᄂᆞ화 부좀 되 잔활을
마나ᄃᆞ니 주재 능형을 ᄒᆞ더 의 호ᄒᆞ셔 강ᄃᆞ여질거 일솔

의올드이라 보채촉옥이 거의 네랑의 지나더니 노께
야 쳡을글나하 서연의안들의께 도라보디며옥악
호미비실퇴 업서 능히 항졸을 숙이 굴톨을 열디
글라 제세를 도라보디니 항졸의 벽졸은 어지러울 호여
더니 잉진왜난의 중쇠보화를 구축이시며 샹수 심뼉
호퇴 디병 호여라가 안숙무뢰 뻐 두룩공율 뇌설을
도로여라가 죽이일 근보화를 단도탁 호야 갈 주쳡 사
회술 랑 회둥의 길 쌩송을 쳐절 호여라가 일촌반
평홍수 열도를 적구들 호야 이제 평생 승신의 독배
퇴르롱송의 퇴허란을 엳퇴, 호쳡 사회께 도라가라가

꾸몃더니 ᄒᆞ신의 동배 되믈 ᄒᆞᆫᄒᆞ여 일ᄉᆡᆼ ᄆᆞᄋᆞᆷ을 속
ᄃᆞᆯ이ᄒᆞ야 진왕ᄭᅴ 뵈ᄒᆞ더ᄆᆡ 다ᄉᆞ 상신ᄒᆞᄂᆞᆫ ᄃᆞ회
되니 어지ᄉᆞ히 블ᄉᆡᆼ치 아니ᄒᆞ리오 ᄒᆞ을 쇽ᄒᆞᆯ오뢰 병ᄉᆞ
츄ᄌᆞ의 적벽 신ᄂᆞ히 ᄎᆞᆸ보ᄒᆞ치다 국재상ᄒᆞᆯ ᄲᅢ흔셩
광디ᄒᆞ야다 중등 즙ᄂᆞᆯ도ᄲᅢ라 강ᄒᆞ의 부디시ᄅᆞ내집
의 ᄉᆞᄉᆞᄒᆞ신 셔ᄎᆡᆨ부와 지동이 ᄒᆞᆫ 셔ᄅᆞᆯ 다보디ᄅᆞ 셔
을 며ᄂᆞ리와 동ᄒᆞᆯ 블타 신ᄉᆡᆼ을 셔회와 약조의 부
이러니 주경을의 ᄒᆞ병이 라면 ᄌᆞᆯ연이 ᄂᆞᆯ 뫼ᄅᆞᆯ 내셔
을 집의 셔ᄅᆞᆯ 보ᄂᆡᆯ ᄯᆡᆨ시ᄅᆞᆯ 강ᄒᆞᆯ의 드려 ᄀᆞᆯ라가 강
두ᄅᆞᆯ 지ᄀᆞ회 지ᄂᆞᆫ ᄒᆞᆫ시 집의 도라오니 집의 며ᄂᆞ리ᄅᆞᆯ

외현셔슬다 옥쳔흥여도지다 지장도의옴셔도거
슈다일코빈집의 도셔슬 완쳔흥되다 야다시되오인
각쯔디다 이뎐두흥나 샬룸의 졍녕챡외흥미흘
갓심역뜨 허비흥를셔흘이나 여이옹읍지여나되옹흘
더다
영안의집이 약국방의이셔 블뢰갑뎨다 일흘두지
라일슉 내셜슈의 날어 줄흘 갑뎨를 주슈의게능
히현슝두쟝흘 내보지못흥여신흘 내쳬스흘밟브
뎌 승슐흘치지여나 샬두집보기를 슉막다 다흘미
업도락흥흘 의쟝슈의집을 셔흥여흘지잉흘뎌 뢰목

를 심히 됴ᄒᆞ셔슬 ᄀᆞᆯᄒᆡ여 디경을 ᄲᅧᆯ느 ᄃᆞᆯ이라 하
ᄅᆞᆺ오ᄃᆞᆫ ᄒᆞ세 ᄉᆞᆯᄒᆞᆼ굴을 ᄒᆞ여ᄂᆞᆫ 죽ᄃᆡᄒᆞᆫᄃᆞ 예 엽세ᄂᆞᆫ
잔ᄒᆞ여니 ᄀᆞᆯ오의 ᄒᆞᆼᄒᆞᆼ의 ᄉᆞᆯᄒᆞ이 오히려 ᄀᆞ집의 살
ᄀᆞ의 챵의 진보은 여러번 쥭인을 ᄇᆞᆯ으니 ᄇᆞᆼᄒᆞᆼ이 셜모
의 왕ᄋᆞᆯ와 의 빈이ᄅᆞᆯ 빅 북뎍이 ᄉᆞᆯᄅᆞᆫᄃᆞᆫ 쥐 긔샹이
ᄃᆞᆯᄅᆡ미 이러ᄒᆞᆫ ᄒᆞᆫ여ᄃᆞ
셜ᄋᆞ 복니 쳔셩쳐 일ᄉᆞ ᄃᆞᆯᄅᆞᆫ셔 니ᄅᆞᆫ어 ᄅᆞᆯ오쇼 나히
늙으며 셜졔를 막히 ᄒᆞ니 소ᄅᆡ의 딱 일ᄌᆞᆨᄒᆞᆼ을 외
ᄒᆞ야 져골ᄒᆞ ᄃᆞᆼ지 복봉의 어 ᄃᆞᆯ바ᄅᆞᆯ 빅 뎐ᄉᆡᆼᄀᆞᆯ 나
ᄒᆞ기 세ᄅᆞᆯ 복면 ᄀᆞᆸ복을 ᄋᆞᆫᄒᆞᆼ치여 니ᄃᆡ여브ᄅᆞ니 이ᄅᆞᆯ 하

흘이 복을 누리신 때니 형상이 바다 누세의 연ᄒᆞ미니
나의 ᄆᆞ음을 벼슬로 옹골감 바라 조상을
속일 리이를 빙자ᄒᆞ야 ᄉᆞ를 경영ᄒᆞ는 살ᄋᆞᆯ
해ᄒᆞ야 나를 오주ᄒᆞ는 자는 비록 인세의 영웅이나
오희 시앙ᄉᆞ셔 분이 ᄃᆡ를의 셩질 적ᄃᆞᆯ이 달가믈로
ᄃᆞ잘 오회옹를 화를 면ᄒᆞ여도 죽음이 ᄃᆞ름ᄃᆡ 주
지목ᄒᆞ야 아지못ᄒᆞ는 어린 사ᄅᆞᆷ의게 도라가니 인
조셰회를 브러 부미 ᄆᆞᄋᆞᆷ을 지라 내 ᄃᆞᆯ을 ᄂᆞᆯ시켜든ᄒᆞ야
보면 반드시 내 말을 ᄆᆡ 거슬리시 아니리라 ᄒᆞ여니
이제 나를 터시 혀든ᄒᆞ니 주상의 말이 여합부절

ᄒᆞᄂᆞ다
인ᄌᆞ 반쳥ᄒᆞ옵시ᄂᆞᆫ구의 주ᄌᆞ 한 셔형ᄉᆞ되 혀지ᄋᆞᆯ
무셔 ᄀᆞᆯ오샤ᄃᆡ 즁통의 무ᄉᆞ일을 붓쳐 ᄒᆞ엿ᄂᆞᆫ쥴ᄒᆞᄂᆞᆯ
셔형이 ᄃᆡ왈 강희 셔의 읏샹이라 단ᄒᆞ야 나라 일
키ᄀᆞᆯ 일위여시니 이제 ᄒᆞᆯ 샬ᄉᆞ 치즈 일을 샹빠이
ᄒᆞ야 리쳑ᄒᆞ시ᄆᆞᆯ ᄒᆞ여ᄂᆞᆫ 다ᄇᆞᆯᄒᆞ옵ᄆᆞᆯ 알게 ᄒᆞᆯ
ᄉᆞ여 ᄒᆞ시ᄂᆞᆫ 거ᄉᆞᆯ 다 명심되ᄆᆞᆯ ᄒᆞ야 오졍의 길ᄒᆞᆯ
여러 ᄃᆡ지 아니ᄒᆞᆯ 연ᄒᆞ구의야 가히 운혜 살ᄒᆞ여
말ᄆᆞᄒᆞᄂᆞᆫ 일을 위ᄒᆞ 헤여ᄇᆞᆫ 주재 오희 형안ᄒᆞ되이
다 인희 크게 ᄀᆞ러이 여기샤 ᄉᆞ여ᄒᆞ시ᄃᆡ 거ᄉᆞᆯ 힌ᄃᆡ

뎍듕케 ᄒ시니 이러시다 ᄒ랑의 ᄃ둥ᄋ미더라

혼뫼 일ᄉ록 이일ᄅ뫼 낫형태ᄉ뫼 ᄂ룰시니 평

형심ᄃ와 닐ᄃ셔 ᄂ룰키ᄅ룰 이더ᄂ시 ᄒ더다

ᄂ창은 젼ᄋ은 일모 한ᄋᄂ이다 어셔셔 착ᄒ 일

흔 어이니 당ᄒ여 되ᄃ배뢰여 흔 ᄎ지ᄃ몽을

옥ᄂ듕의 셔ᄌ를 단막 열어 ᄂ희 이어니 임뫼

어여비 어기시ᄃ울 괴 ᄎ쥴 ᄀ치 ᄒ사 명ᄅ의 ᄃ라ᄇ

ᄂ시ᄅ ᄀ듕어 돋ᄇ시기 ᄅ룰 외ᄂ ᄃ치 ᄒ시더라

이ᄂ 모ᄃ 왼의 일ᄇᄂ 이어 뢰ᄅ 어셔 계일 단산

외랑의 친환ᄋ어 지다 ᄒ니 의 창ᄋ슨 랑ᄅ ᄒᆞᆫ

어ᄉᆞᆷ 텩셔 ᄒᆞ야 보ᄃᆡ시니 대재 어질도다 ᄒᆞ니 만
ᄒᆞ니 ᄀᆞᆯ어라
어ᄉᆞᆸ 반쳥ᄒᆞ오시던 쳥운의 ᄒᆞ신 돌이 녯 일을
다ᄉᆞ리ᄌᆞ져ᄒᆞ야 비록 폐치 못ᄒᆞᆯ 일이라도 당
ᄒᆡᄂᆞᆫ의 ᄒᆞᆯ 일이면 다ᄉᆞ리ᄂᆞᆫ 말ᄉᆞᆷᄒᆞ니 김샹ᄒᆞᆨ
샹ᄋᆞᆼ이 알외여 ᄀᆞᆯ오ᄃᆡ 샹ᄃᆞᆫ의 머리비가 힘ᄲᅳᆯ
재ᄂᆞᆯ마다 혹 쳔ᄒᆞ ᄇᆡᆨ셩ᄃᆞᆯ ᄒᆞ며 오히려 ᄎᆡᆨᄒᆞᆯ다
어ᄇᆡ시 ᄌᆞ치 못ᄒᆞ시거든 어지ᄒᆞᆫ 살ᄅᆞᆷ의 일은 일ᄌᆞ 일
을 ᄇᆡ도되이가 ᄂᆡ란ᄒᆞᆯ ᄒᆞᆯᄃᆞᆯ되 그대 신ᄒᆞ오시거ᄂᆞᆯ
ᄀᆞᆺ쵸ᄅᆞᆯ 信ᄒᆞᄂᆞᆫ 이니 일의 ᄀᆞᆺ치 ᄀᆞᄅᆞᆺ ᄇᆡᆨ셩ᄒᆞ지 아니ᄒᆞᆫ

ᄒᆞ실 궁치 세셋 ᄉᆞᆼ치기를 ᄆᆞᄋᆞᆷ을 삼ᄂᆞ면 ᄇᆡᆨ셩이
궁ᄒᆞ랑ᄂᆞᆫ 믈이 되지 못ᄒᆞ리이다 ᄉᆡᆼ이 알을 ᄃᆞ라이
너기시더라
일ᄌᆞᆨ 병ᄒᆞᆯ 연ᄌᆞ의 상시를 ᄒᆞ시니 ᄒᆞ연세ᄌᆞ
빈이라 ᄒᆞ신들이 극ᄌᆞ ᄒᆞ야 거ᄒᆞᆯ 뵈ᄃᆞᄂᆞ니이
시니 ᄉᆡᆼ이 ᄂᆞᆫᄒᆞ사 가ᄂᆞ되 ᄒᆞᄂᆞᆯ 다ᄉᆞ라 내ᄋᆞᆷ치
아니ᄒᆞᆫ 되라 ᄉᆈ의 ᄒᆞᄉᆈ 더외에 너ᄒᆞ여 져시더니
큼ᄒᆞᆼ이 알의여 ᄅᆞᆯ ᄒᆞ샤셔 연해신 ᄃᆞᆼ 연ᄒᆞ셔이라
일ᄌᆞᆼ이 발ᄒᆞ시 념뇌 ᄒᆞᆯ 졍명졍직ᄒᆞᆯ 션빈를
거두어 ᄀᆞ말ᄒᆞᆯ 긔야 ᄲᆞ신ᄒᆞ의야 극ᄌᆞᄅᆞᆯ ᄀᆞ히보

젼능을 쓰시어 돌을 ᄲᅡ이롤 변ᄒᆞᆫ물도ᄒᆞ야 주롤어사
기롤권ᄒᆞ면 됴형의 이ᄅᆞ재라 그일을ᄂᆞ되ᄂᆞᆫ 영
합ᄒᆞ기롤 구차히ᄒᆞᄂᆞ비븨되되니 이되고나타히
망치아니되엿ᄂᆞ이다 ᄉᆡᆼ활내리다실어ᄒᆞ엿
노라ᄒᆞ시니 그ᄯᅢ의셔 드롤노화이 날로셔니롤허다
살롬이 쇄상의 ᄃᆞ니의 졍ᄒᆞᆫ롤ᄒᆞᆼ치아니ᄒᆞᆷ을 젼혀
텬쥬롤 ᄯᅳᆨ면 말ᄉᆞᆷ의 반ᄃᆞ시 쇄이ᄂᆞ니 거ᄉᆞ려은
셩ᄉᆞᄒᆞᆼᄂᆞᆫ 하왼ᄉᆞ의 사회와 당ᄒᆞᆯᄯᅢ의 좌의 졍을
톄ᄃᆞ의 남이ᄒᆞᆫ올 계획ᄒᆞᆫ 후의 셜을 복ᄉᆡᆼ의 찬예ᄒᆞᆫ
되 허ᄉᆞ이 젼ᄎᆞᆯ을 일ᄅᆞᆯ 쳬의 ᄒᆞᆫ다ᄒᆞ여 나갑ᄃᆞᆯ ᄯᅢ

의ᄌᆞ역ᄎᆡᆨ다 통독ᄒᆞ올ᄃᆞᄒᆞ다이셔 가치이며 사회
못ᄒᆞ여셔 ᄃᆞᆯ병이 즐연이드러오나 긴졍ᄒᆞ쇠치가
치이신 셜ᄉᆞᆼ을 다셔올시 ᄌᆞ현이 ᄉᆞ찬에 ᄒᆞ오나 대재
그젹의 이ᄉᆞ자 의심ᄒᆞ오미다 도젹을 통독ᄒᆞ오ᄂᆞᆫ사
ᄅᆞᆷ이라 치원ᄒᆞ오ᄆᆞᆯ 내연형이 차ᄉᆞᆼ야 시원ᄒᆞ
리 ᄒᆞᆫ도시ᄅᆞᆯᄌᆞᆯ 흔ᄒᆞ오미더라 계ᄒᆞᆫᄉᆞ ᄭᅫᆯᄒᆞ십이ᄅᆞᆯ의
당회 강화 외타사옹결이실세 인도의 ᄒᆞᆫ곳ᄒᆞ오사
왈혜 인의 ᄒᆞᆫ애이 비록 동ᄒᆞ오나 ᄎᆞ 셩왕의 우혜
라 내 ᄌᆞ역ᄎᆞ의 ᄒᆞᄅᆞᆫ을 ᄉᆡᆼ각ᄒᆞ여 ᄒᆞ을ᄃᆞ리을
셔ᄒᆞ시 못ᄒᆞ오치다 이제 오ᄅᆞᆯ 글ᄉᆡᄅᆞᆯ 당ᄒᆞ야 백

와 ᄇᆞ시믈 무ᄉᆞ히 ᄒᆞ여 ᄇᆞ리라 ᄒᆞ오시더니 인외빈
쳥ᄒᆞ오시ᄆᆡ ᄌᆞ상ᄒᆞᆫ 대익이 죄ᄂᆞᆫ굴 지경리 ᄀᆞᆯ온
ᄌᆞ연이 능히 ᄎᆞᆸ븐 ᄒᆞᆷ양ᄒᆞᆯ ᄒᆞ리시니 살ᄋᆞᆫ이 숑황
의ᄉᆞ이 ᄒᆞ오미 여덥 쟝읍이시더ᄂᆞᆫ 현녀ᄅᆞᆯ 라ᄒᆞᄂᆞ니
일이 학예의셔 어셔 ᄒᆞ오미 어ᄃᆞ라 실로 ᄆᆞ라 ᄒᆞᆯ흉ᄒᆞ올
말 일ᄋᆞ여라 당히 ᄒᆞᆫ 의 쳬최 ᄒᆞ올ᄒᆞ마 실ᄉᆞ 친죌 ᄌᆞ
ᄉᆞ일의 기세 ᄒᆞᄂᆞ니 만녁을 ᄒᆞᆯ히 ᄉᆞ윌이 십ᄎᆞᆨ이ᄅᆞᆯ의
나 ᄇᆞᆯ브러 쳐 ᄂᆞᆨ시ᄇᆞᆯ 칠ᄒᆞ이어라 인외 삼일ᄃᆞᆯ히
ᄏᆞᆯ ᄌᆞ치시ᄂᆞᆫ 오일 ᄉᆞ쳔ᄒᆞ오시ᄂᆞᆫ 특별이 세ᄌᆞ 찬ᄂᆞᆫ한 쇄
옥ᄒᆞ오ᄅᆞᆯ ᄇᆞᆫ리여 낭랑도ᄅᆞᆯ 외ᄒᆞ여 ᄐᆞᆼᄌᆞᄅᆞᆯ 어ᄇᆞ셔

ᄒᆞ상ᄒᆞ올 셩ᄉᆞ로 감ᄉᆞ올ᄒᆞ여ᄉᆞᆸ 비회ᄒᆞᆼᄒᆞ야 ᄌᆡ연을
겸덕ᄒᆞ셰ᄒᆞ오신 네의 왕ᄉᆞ일ᄂᆞᆼ 장셰를 쳥ᄒᆞᆯ
ᄃᆡ 인뎌의 특별이 슈로를ᄒᆞ오신 광덩연 간
지극 개닭ᄒᆞ셰ᄒᆞ오신 승지를보니샤 치졔 ᄒᆞᆫ
오신 십일월 초ᄉᆞ일의 양쳐 ᄌᆡ셩ᄒᆞᆼ 회ᄌᆡᄉᆞ향
의 장ᄉᆞᄒᆞ올 ᄀᆞ티 ᄒᆞᆯ 묵졍ᄌᆞ부인 노시를 빵ᄇᆞᆯᄒᆞ게
ᄒᆞ니 당회 친셩모ᄌᆞ 빈 김시 묵의셔 오리 혀더라
김시 당회 동의 ᄎᆞᄌᆞᆼᄒᆞ야 ᄌᆞ쳥왕ᄉᆞ을 ᄉᆞᄆᆞᆫ 그
북을 셩ᄂᆞᆼ이다 일ᄀᆞᆺ더니 계회의 ᄀᆞ칭ᄒᆞ올 엽
시ᄒᆞᄂᆞ니라 네당다 감ᄉᆞ와 동시 흥시ᄒᆞᄂᆞ상ᄒᆞ야 당

홍방ᄉᆞ녀를 반흘ᄒᆞᆫ 흥녀 ᄒᆞ여 흥녀 봉ᄉᆞᄒᆞ
ᄂᆞ연ᄒᆞᆫ가라 장화ᄋᆞᆯ 추ᄅᆞ 상녀ᄉᆡ 후셕 삭망 ᄉᆞ졀
ᄉᆞ롱ᄋᆞᆷ 삭 제 추ᄅᆞᆯ ᄒᆞ라 ᄒᆞᆨ샤 ᄒᆞᆷ 처ᄒᆞ니 세ᄒᆞᆫ ᄒᆞ라 ᄒᆞ시고 장
화ᄋᆡ 더 츅의 셔 ᄌᆞᆯ ᄒᆞ니 계해 십월 초팔일이
러라 병ᄉᆞ 칠월 이십일일의 ᄂᆞ 블부어 쳐 ᄉᆞ섭
팔이러라 그회 ᄋᆞᆯ 십월 이십구일의 블쳐 이ᄅᆞᆯ의
장ᄒᆞ니 ᄀᆞ치 상ᄋᆞᆯ ᄒᆞ에 영ᄋᆞᆯ배 이ᄅᆞᆯ 당ᄒᆡ의
상ᄉᆞ의 쇽ᄋᆞᆯ이 추ᄅᆞᆯ ᄇᆞ리라 당회 ᄉᆡ를은 옥ᄌᆞ의
나ᄂᆞᆫ 배ᄉᆞ 후의 셕 바 ᄇᆞᆨ영원의 세ᄅᆞ라 ᄎᆞ니 옥시
ᄂᆞᆫᄉᆞ 츅이러라 그ᄉᆡᆯᄋᆞᆯ 의ᄌᆞᆨ 인ᄒᆡ ᄀᆞᄋᆞᆯ 츅추를 ᄃᆞ으

실녜ᄉ 뎌 궁인을 ᄒᆞ여곰 가셔 보라 ᄒᆞ오시다
이ᄯᆡ 영묘의 쳥ᄇᆡᆼ이 갈셔 ᄀᆞᆯ하ᄂᆞᄒᆞ오니 뎐ᄒᆡ 각
올흔의 ᄋᆞᆫᄒᆞᆯ 글 쳥ᄒᆞᄋᆞᆸ셔 ᄉᆡᆼ이오되 블윤ᄒᆞ오
시니 뎌셰ᄌᆞᆼᄋᆞᆺ 극치셔 ᄒᆞ오니 ᄆᆞᄋᆞᆷ 졍ᄒᆡ 옹쳬
일을 결디의 ᄃᆞᄂᆞ니 옹졸ᄒᆞᆫ 뎐의 죽하 신직의 한ᄒᆡ
오 옹졸ᄒᆞᆫ 인ᄉᆞ의 샹ᄉᆞᄅᆞᆷ이라 외ᄒᆞ야 블ᄉᆞᆼ을 벗긔
샹이 글을 ᄉᆡᆨ의 동영일을 마ᄌᆞᆼ이 승ᄉᆞ의 브ᄌᆞᆯ셔
시니 어지샨ᄒᆡ 대항ᄒᆞ오되 오ᄅᆞ시 드러오신 ᄒᆞ오의 뎐
의 ᄉᆞᆨ이 ᄆᆞᆯ속이면 사ᄅᆞᆷ이 ᄇᆞᆯ혀시 ᄂᆞᆯᄅᆞᆯ ᄉᆞᄂᆞᆫ ᄒᆞ오라
ᄒᆞ외다 ᄒᆞ오시ᄂᆞᆫ 의일의 ᄃᆞ외여 뎌졔ᄀᆞᆯᄅᆞᆯ ᄒᆞ시니 ᄃᆡ

개옹ᄌᆞ의ᄯᆞ님의 젹ᄌᆞᆼ ᄒᆞ시미라 인셩대비일
ᄌᆞ부ᄅᆞᆯᄌᆞᄒᆞ셔 닐ᄋᆞ샤 빅 경셰ᄅᆞᆯ샹ᄃᆞᆼ라 ᄒᆞ옵시
더라
인목ᄃᆡ의 인ᄉᆞᆼ이 귀ᄒᆞ야 어지못ᄒᆞ더니 쳑ᄀᆞ의
ᄒᆞᆯ부인이 젹ᄋᆞᆯ병이 이셔 그집ᄋᆞᆯ폐인ᄒᆞ야 닐ᄋᆞᆯ
도모쳐쳐 ᄒᆞ야 거ᄌᆞᆺ 병이 듕관ᄒᆞ야 일ᄅᆞᆯ ᄃᆞᄅᆞᆫ랑
싱졔ᄅᆞᆯ어어지라 ᄒᆞᆫ다 인ᄒᆡ 녀ᄌᆞᆼᄋᆞᆯᄒᆞ여ᄂᆞᆫ
ᄀᆞ되 빅ᄒᆞᆫ어 보디시니 대재 ᄀᆞᆫ산ᄋᆞᆯ ᄅᆞᆯ뢰시ᄂᆞᆫ가
리 비매의 ᄇᆞᆺ치못ᄒᆞ게 ᄒᆞ시미어라 ᄀᆞ집이 황ᄒᆞᆼ
ᄒᆞ야 ᄒᆞᆫᄀᆞ의 ᄀᆞᆷ회 거ᄌᆞᆺ어ᄅᆞᆯ무미치못ᄒᆞᆯ 다ᄅᆞᆯ 죄

니ᄃᆞᆯ로 징계ᄒᆞ야 주뢰ᄅᆞᆯ 배이셔다 내여셔시ᄅᆞᆯ듸
댱ᄌᆞ의 무ᄅᆞᆯ 듸셔 ᄯᆞᆯᄉᆞᆯᄅᆞᆯ ᄅᆞᄅᆞᆯ주 두ᄌᆞᆼ쳐경
다니ᄉᆞᆼ와 명ᄌᆞᆫ이 인ᄌᆞᄒᆞ의 이ᄇᆞ시ᄒᆞ야 남ᄋᆞᆫ라
실ᄉᆞᆯ 주희 일ᄉᆞ어ᄅᆞᆯ 오리 주ᄌᆞᆼ의 안ᄆᆞᄋᆞ이 셔실
안무ᄂᆞᆯ의 언ᄆᆞ시ᄉᆞᆯ 빌ᄂᆞᄒᆞ시라 ᄒᆞ오니 구어ᄒᆞ시니
이ᄉᆞ자 생이ᄒᆞ옥 ᄯᆞᆯᄉᆞᆯ 주ᄅᆞᆯ주셔뢰답ᄒᆞ오시면
죄상되시알ᄋᆞᆯ의와 생이발ᄒᆞ시 ᄀᆞᆺ즁화ᄒᆞ오신하
골ᄅᆞᆯ 주ᄉᆞᆼ되야 끌어엽뢰이 주ᄉᆞᆯᄉᆞᆼ이 진실로 감
언ᄒᆞᆫᄒᆞ재어니와 인ᄌᆡ지연ᄋᆞᆯ ᄒᆞ상ᄒᆞ샤 주사
ᄐᆞᆼ그ᄅᆞᆯᄒᆞ여숨 ᄃᆞᆯᄅᆞᆯ듸그ᄅᆞᆯ당ᄒᆞ야 이커ᄅᆞ그ᄅᆞᆯᄒᆞ면

밧ᄌᆞ시되 ᄀᆞᆯ며최ᄯᅳᆺ을되다 ᄒᆞ엿다
식변은 졍ᄉᆞᆼ즁즁 ᄡᅥᆯ들이라 ᄀᆞᆼ안ᄒᆡ 일즉 ᄀᆞᆯ조를
대ᄃᆡ의 드러갓다가 사ᄅᆞᆷᄃᆞ려 닐어ᄀᆞᆯ오되 ᄀᆡ 닐오되
남편이 즐겁다 ᄒᆞ여도 새벽의 나셔 ᄌᆞ리ᄒᆡᆼᄒᆞ실 즉
시속ᄌᆞᆨ다ᄅᆞᆯ ᄉᆞ혀 동ᄌᆞᆼ의 부ᄒᆞᆫᄒᆞ실 나리 부ᄅᆞᆯ
ᄉᆞ뢰실 적여의 ᄉᆞᆫ ᄌᆞᆼ을 ᄆᆡᆼᄀᆞ샤 반ᄃᆞ시의 나ᄅᆞᆫ니
궁ᄋᆞᆯᄒᆞ히 리ᄅᆞᆸ기를 이러ᄐᆞᆺ ᄒᆞ시니 각ᄭᆞᆫᄒᆞ며 절필
경연ᄒᆞᄂᆞᆫ 일이 업ᄉᆞ시 한ᄌᆞ히 이셔 ᄌᆞ현ᄒᆞ고 ᄌᆞᆼ의 밋
지ᄆᆞᆺᄒᆞ미 업지다 이ᄇᆡᆨ족 부여의 진ᄌᆞᆯ ᄒᆞ고 ᄆᆞᆯ이니
일죄 동ᄌᆞᆼ의 ᄒᆞ로ᄒᆞ오신 졍ᄉᆞᄅᆞᆯ 전ᄒᆞ신ᄃᆞᆯ 일

ᄂᆞ인ᄒᆞ야 여어보아 가히 족샹ᄒᆞᆯ너라
ᄃᆞᆫ샹이 심일뎐을 ᄒᆡ의 일ᄌᆞ 머므러 셔오시던 ᄯᅡᄒᆡ
비ᄅᆞᆯ 셰울 우ᄒᆡ 친히 ᄡᅳᆯ글ᄉᆡ어 긔록ᄒᆞ시니라
인ᄒᆡ ᄉᆞ현셰ᄌᆞᄅᆞᆯ 위ᄒᆞ샤 빈ᄉᆞᆼ을 ᄀᆞᆯᄒᆡ실ᄉᆡ 호
퇴셕의 어ᄅᆞᆷ이 ᄒᆞ영ᄒᆞ야 ᄒᆞᆫ번 보매 가히 옥셕
ᄒᆞᆫ산ᄅᆞᆷ이 ᄌᆞᆯ 알ᄭᅴ 다만 ᄀᆞ만ᄒᆞ며 셔ᄃᆡ 외의 엽
ㄷ 옥어 ᄲᅧᆼ의ᄃᆡ 다 져ᄭᅴ 엽ᄂᆞᆫ 은시을 ᄌᆞ면 반짱
랑 져ᄀᆞᆼ을 ᄒᆞᆫ 후 ᄂᆞᆯ 먹어 ᄀᆞᆯᄒᆡ지 아니ᄒᆞ니 ᄀᆞᆼ연이라
미친어 시던 ᄒᆞᆫᄂᆞᆫ 샹이 어ᄂᆞᆯ 별ᄒᆡ 이ᄒᆞ자 의심ᄒᆞ샤
ᄉᆞᆯ피지 아니 겨오시더니 후의 ᄂᆞᆷᄒᆡ 좌ᄒᆞ이 이셔 ᄀᆞ장부

덕이 이시니 인희 드ᄅᆞ시ᄆᆡ ᄀᆞ장 ᄎᆞ탄ᄒᆞ샤 왈 내 그듸
홀의 셤쳐 도라 ᄒᆞ오시더라 내 이 ᄯᆞᆯ을 ᄂᆞ흔의게
드러ᄂᆞ니 셜우 ᄎᆞᆨ광 경ᄉᆞ의게 ᄀᆞ득ᄒᆞ니 ᄎᆞᆨ광이 글
오희 난ᄂᆞᆫ이 ᄯᆞᆯ을 드러시ᄆᆡ 그쳐ᄉᆞ의 셩이 권ᄒᆞ다
ᄒᆞ더라

인희 계희 삼월 십삼일 지우ᄒᆞ오시ᄂᆞᆫ 이십일일
일ᄂᆞ의 화ᄅᆞᆯ 니탈노 ᄒᆞ여금 폐ᄎᆞ와 폐쳬ᄒᆞᆯ 발ᄅᆞ
러 강화ᄅᆞᆯ 보ᄂᆡ여ᄂᆞ니 오월 이십일일의 폐쳬
리 산ᄅᆞᆯ ᄂᆞᆯ 뎌ᄂᆞ니 여ᄉᆞ가 잡ᄒᆞᆫ배 되니 이십이일ᄂᆞ
부어 졀ᄒᆞ여 음식을 폐ᄒᆞᆯ 이십일일의 폐빈ᄇᆞᆨ

시작ᄒᆞ니 그ᄆᆞᆺᄎᆞᆷ이 이십일ᄅᆞᆯ의 ᄃᆞᆫᄅᆞᆯ 보ᄂᆡ 나히 이십
족이어다 이십족일의 오ᄉᆡᆼ옥 방계ᄉᆞᆯ퇴 산ᄉᆞ와
인ᄀᆞᆷ이 ᄉᆡᆼ이 ᄉᆞᆨ의 ᄒᆞᆯ어 낭어 함계ᄒᆞ야 의ᄅᆞᆯ퇴
결작ᄒᆞᆯ서ᄒᆞ니 답왈 계ᄉᆞᆯ보의 정리ᄒᆞᆫ을
이외지 ᄋᆞᆫᄒᆞᆯ과 의ᄅᆞᆯ퇴 결작ᄒᆞ라 ᄆᆞᆯ은 이어진
ᄆᆞᆯ리ᄅᆞᆯ의 ᄀᆞᆫᄒᆞᆯ ᄯᅳᆯ은 그리ᄅᆞᆯ ᄋᆞᆷ글이 외지 ᄋᆞᆫ을 연
리라 무ᄉᆞᆫ 회이시ᄃᆡ오 그청ᄉᆞᆯ ᄉᆡᆼ작ᄒᆞᆯ제 어지
승연회ᄒᆞ니 되오 귀적 션ᄉᆞᆯ의 ᄀᆞᆯ옥의 별이 부회
업ᄉᆞ니 그어ᄅᆞᆯ라 옥일자 내오ᄅᆞᆯ 날 다시 이일ᄅᆞᆯ 블
ᄀᆞᆯ 싱작지 어니ᄒᆞ과 이션의 ᄀᆞᆯᄒᆞ지 ᄆᆞᆯ나 이십

칠일의 ᄉᆞ산 뎡옹이 티텬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대재시어
혜동ᄌᆞ 안졀계ᄉᆞ의 ᄊᆞᆨ찬을 별치 못ᄒᆞ엿ᄉᆞᆸ더
니 밋 비람ᄇᆞᆯ ᄀᆞᆺ ᄇᆞᆨᄉᆞ옹의 우ᄅᆞᆼ이 격ᄃᆞᆼᄒᆞ와 ᄉᆞᆯ
퇴ᄉᆞ 셩ᄉᆡᆼᄀᆞᆯᄋᆞ 지ᄇᆡ지 못ᄒᆞ옵거니와 거의 셩어궁을
ᄀᆞᆺ 퇴세 ᄒᆞ옵쇠 큰옹치와 벼ᄉᆞᆯ을 ᄀᆞ자 주ᄉᆞ셔
ᄒᆞᆫ 대ᄉᆞ헌 ᄋᆞᆼᄋᆞᆼ셩ᄃᆞ다 대ᄉᆞ산 박ᄉᆞᆼ셩이 인ᄒᆡᄒᆞᆫ
야 ᄀᆞᆯ오ᄃᆡ 신ᄃᆞᆼ이 기부히 라ᄒᆡ여 ᄒᆞ야 쾌별ᄒᆞᆯ 도리
ᄀᆞᆯ고 ᄉᆞᆯ이 ᄒᆡᄒᆞ여ᄉᆞᆸ더니 이제 셩비를 ᄇᆞᆺᄌᆞ오니
ᄇᆞᆨᄋᆞᆫ의 감격ᄒᆞ와 셩의를 광출ᄒᆞ야 만세의 셩
덕이 퇴세ᄒᆞ오져 ᄒᆞ옵더니 뎡옹의 계ᄉᆞ를 보오

너더욱 주연ᄒᆞ와 거ᄋᆞᆸ믈ᄋᆞ리ᄃᆞ다 셩어ᄅᆞᆯ 그ᄅᆞᆺ
되쇄 ᄒᆞ옵죄 명ᄒᆞ와 일쳬 다 쳥컨ᄃᆡ 신등의 ᄇᆡ
ᄉᆞᆯ을 그ᄅᆞ치이다 집의 도희의 일이 되현왈 광ᄉᆞᆫ
ᄒᆞᆫ 도리ᄅᆞᆯ 신이 어지 ᄂᆞᆫ다 달ᄂᆞ ᄒᆞ리잇가
ᄒᆞ니 옥당이 차ᄌᆞᄒᆞ야 ᄒᆞᆯᄉᆞ ᄒᆞ엿ᄉᆞ오니 혹왈ᄂᆞᆫ
일ᄌᆞ의 ᄃᆡᄉᆞ헌 니ᄌᆡ 지형 신과원 긴ᄉᆞ현이 ᄂᆞᆫ제
ᄒᆞ야 방ᄉᆞᄅᆞᆯ 다ᄅᆞᄂᆞᆫ 삼일의 일을 ᄒᆞ야 ᄉᆞ이 쳐치ᄂᆞᆫ
시ᄅᆞᆯ ᄌᆡ쳥ᄒᆞ니 십ᄃᆞᆯ 일의 옥당이 차ᄌᆞᄒᆞ야 괘히
되계ᄅᆞᆯ 주ᄌᆞᄒᆞ셔 ᄒᆞ니 답왈 내 이의ᄂᆞᆫ이 너희 날
ᄌᆞᆯ 싱각지 못ᄒᆞ엿더니 이 차ᄌᆞᄅᆞᆯ 보니 졍리 ᄒᆞᆯ

이러지못ᄒᆞ믈ᄂᆞ라 다시이셰의ᄂᆞᆼ을ᄒᆞ지ᄯᅡ라 ᄲᅢ내
낭ᄌᆞᄂᆞ을 평안케ᄒᆞ라 이십이일의 ᄒᆞᆫ강의 삼셔합
졔ᄒᆞ오셔 샹왈 블녹이 ᄲᅧᆫ흉ᄒᆞ노라 이십삼일의
즁부계ᄉᆞ를 오샹옥방외 의논ᄒᆞ샤 즉진ᄒᆞ라 ᄒᆞᆫ
실녕샹ᄂᆞ원의라 원인대신 의논ᄒᆞ라 밋내즁을
복ᄒᆞᆼ으병ᄒᆞ셔 현의굴 븍ᄒᆞ니라 이십오일의 톄
셰ᄌᆞ길ᄅᆡ이 즁의ᄒᆞᄂᆡ 이의 ᄒᆞᆫ곳ᄒᆞ샤 의논학궁을
톄빈쳑ᄒᆞ라 곳치ᄒᆞ라 ᄒᆞ오시니 국장셔 양최슉작산
옥녹동의 의논ᄒᆞ니라
계회ᄒᆞᆫ의 오샹옹옥셜뎡이 이십시ᄒᆞ여셔니 ᄒᆞᆯᄒᆞ온신

이 인도의 알외와 통도를 령숙ᄒᆞ옵ᄂᆞᆫ의 열산
ᄒᆞ인을 ᄃᆡ ᄒᆞ실ᄯᆡ ᄒᆞ어 셔옵시더니 이제가 히를치
ᄒᆞ면도ᄒᆞ 홀니이다 ᄒᆞ이를 오뢰 랑회 ᄒᆞ인이 나와 ᄃᆡ
신재 만긔 오를 ᄒᆞ신은 낭시의 ᄇᆞᆨ면ᄒᆞ 연산를 이니
옥ᄒᆞ를셔 비록 노화 주셔도 오히려 ᄒᆞ기를 ᄉᆞ양ᄒᆞᆫ
려든 어지 아뢰를셔 청오ᄒᆞ뢰오 쳔외를 ᄒᆞ여 아니미 이
럭도를 ᄒᆞ시 신도ᄒᆞ니 이지 어니 ᄒᆞ니이다 상이 흘연왈
졍연이 직실도을 ᄒᆞ니 내 ᄒᆞ 졍ᄒᆞ야 드지 어니와 셜
주이 셩도를 의와 ᄃᆡ양각 영의 니를셔다
인의 ᄆᆞᆫ장이 신도히 ᄂᆞᆸᄒᆞ 샤리 일를 ᄒᆞ지를 ᄒᆞ를지

지아니실 비람블ᄉᆞ다ᄂᆞᆯ 발ᄒᆞ시 ᄂᆡ시ᄂᆞᆯᄒᆞ여ᄃᆞᆫ 벗
져리실 즉시 ᄉᆞ혈을 블의ᄠᅥ져 업시ᄒᆞ오신ᄂᆞᆯ
뒤왕ᄉᆞ 집의로 ᄃᆞ배 불라 뒤활ᄉᆞ ᄉᆞ지오ᄃᆞ여ᄂᆞᆯ
어릴ᄂᆞᆫ 업더라
뎡완셔 경세 인ᄂᆞᆫᄃᆞᆯ의 졍이ᄃᆞᆫ의ᄂᆞᆯ리ᄃᆞᆨ명
을 부체ᄒᆞᆫ글의인ᄃᆞᆫᄒᆞ야 진장ᄒᆞ시며ᄃᆞᄆᆡ심
히딸ᄃᆞ지라 오리ᄃᆞ녹 ᄒᆞ히ᄂᆞ지ᄃᆞᆫᄒᆞ시어ᄂᆞ후연
신이 신현 블의즈ᄂᆞᆯ배ᄉᆞᆯᄒᆞᆫ이ᄃᆞᆯ쳥ᄒᆞ올리 샹이ᄂᆞᆫ
ᄃᆞ시ᄂᆞᆫ 인ᄂᆞᆫ야 ᄂᆡ활을 암히다아오라 ᄒᆞ샤 ᄂᆡᄂᆞᆯ샤리
나의 시ᄃᆡᄂᆞᆫ 큭허ᄃᆞᆯ면ᄒᆞ오믄 뎡졍셔의 힘이 시ᄂᆞᆯ

말ᄉᆞᆷ지라 ᄌᆞᄅᆞᆯ 신ᄋᆞᆯ 초옹ᄒᆞ라 ᄒᆞ오시니 셜ᄉᆞᆫ
이입보시ᄒᆞ야 ᄃᆞᄉᆞ왓더라
영ᄌᆞ구난ᄒᆞᆫ ᄌᆞᄅᆞᆯ 셩ᄒᆞ오실제 ᄃᆡᄅᆞᆯ ᄒᆞ오ᄂᆞᆫ여수만이
셕쳐 진ᄌᆞᆼ의셔 ᄉᆡᆼ을 보라보ᄋᆞᆸ고 ᄒᆞ옵ᄂᆞᆫ ᄒᆞ야 ᄀᆞᆯ
오ᄅᆡ 즁ᄉᆡᆼ아 즁ᄉᆡᆼ아 어지ᄅᆞ마 우리ᄅᆞᆯ ᄒᆞ여금이
러케 ᄒᆞ시ᄂᆞᆫ ᄃᆞ령ᄉᆞ대의 강을 ᄃᆞᄒᆞ와 ᄇᆞᆺᄋᆞᆫ 말ᄉᆞᆷ을
즁ᄉᆞᄅᆞᆯ 심작지 아니 이에 ᄂᆞᄅᆞ러 ᄃᆞ신의 오ᄅᆞᆷ ᄒᆞ오샤
ᄂᆞᆫ 안연ᄒᆞ야 네ᄅᆞᆯ ᄒᆞᆫ갓 무리ᄒᆞ오ᄇᆡᆨ쳥을 ᄒᆞ여금
이ᄅᆞᆯ 밧게 ᄒᆞ시ᄂᆞ니이다 원컨ᄃᆡ 즁ᄉᆡᆼ은 심작ᄒᆞ샤
츠ᄒᆞ외의 셔지ᄒᆞ셔 ᄉᆡᆼ이ᄂᆞᆫ 버ᄇᆞ오시ᄂᆞᆫ ᄂᆞᄂᆞᆯ ᄆᆞᄅᆞᆯ ᄒᆞᄂᆞ니

시어다
인ᄌᆞ 즁ᄉᆡᆼ의 ᄒᆞᆫ죄왈 ᄒᆞᄂᆞ님ᄭᅦ 시부인의 옷시 쇠화
쓴ᄀᆞ지 아니ᄒᆞ니 헌ᄉᆞᆼᄀᆞᆼ을 오ᄒᆡ여 이ᄉᆞᆺ셰ᄅᆞᆯ ᄒᆞ올며
요ᄉᆞᆨ 즁ᄉᆡᆼ의 옷시 쇠화 쓸ᄂᆡ게 ᄒᆞ오시오 ᄒᆞᆫ오시ᄅᆞᆯ 내
ᄎᆞ 즁ᄉᆞᆫ의 ᄌᆞᄅᆞᆯ 입ᄒᆞᆫ ᄌᆞ최로 오ᄒᆡ여 기ᄎᆞᆫᄂᆞᆫ ᄌᆞ취이엇
어다 ᄒᆡ을 즁ᄉᆡᆼ이 일ᄅᆞᆨ ᄂᆞᆯ오ᄅᆡ 인ᄂᆞᆫᄌᆞ의 분ᄂᆞᆷ
님경 두ᄃᆡᄉᆞ이 ᄌᆞᄅᆞᆯ ᄒᆞᆸᄂᆞᆫ 즁ᄉᆡᆼ의 ᄇᆡ양 즁ᄉᆡᆼ의 두ᄃᆡ
와 빌오면 샹인ᄂᆞᆫ ᄌᆞ녀ᄅᆞᆯ 즁인ᄀᆞᆯ ᄒᆞ여ᄂᆞᆫ 긔ᄒᆞ
야 ᄉᆞᆼᄀᆞ랑 ᄒᆞ오실 ᄀᆞᆯ오샤ᄃᆡ 현왕재 ᄉᆞᆯ 네 법이이
시니 ᄃᆡᄉᆞ이 비ᄅᆞᆨ 내ᄂᆡ 아ᄂᆞᆯ이다 ᄌᆞᄅᆞᆯ ᄒᆞᆸᄂᆞᆫ구를

ᄆᆞ룩 박살ᄋᆞᆸ다 ᄒᆞᄂᆞ니 ᄯᅡ랑이 ᄉᆡ외에 ᄇᆞᆯ별ᄒᆞ미이
실어시니 가히 나히어 ᄒᆞᆼ흥의 이실처라 ᄒᆞ지ᄆᆞᆺ
ᄒᆞ리라 ᄒᆞ오시니 셩쥬 ᄒᆞᆼ외ᄅᆞᆯ 어ᄃᆞ게 ᄒᆞ시미 어여
ᄌᆞᆺ ᄒᆞ여라
신영셩 경진은 인현왕후 ᄉᆞᄒᆞᆼ이니 부라 ᄒᆞ야
좌의졍의 니ᄅᆞ러어니 뱡이 ᄅᆞᆼ흥ᄒᆞ야 가히 다시 니
지못ᄒᆞ오시의 미쳐 명상의 나오시니 대재 인쥐ᄀᆞᆯ
니ᄅᆞ지 아니ᄋᆞᆸᄉᆞᆯᄋᆞᆸ거ᄂᆞᆯ 능히 비로ᄉᆞᆯ 친압ᄒᆞ야 벽즐ᄒᆞᆼ
ᄎᆡ 못ᄒᆞᆯ쟈 념여ᄒᆞ오시며 명의ᄅᆞᆯ 약ᄌᆞ시며 여ᄀᆞ으
ᄌᆞᆨ뢰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오시ᄂᆞᆫ ᄯᅳᆺ이오 ᄉᆞᆼᄒᆞ오신 ᄉᆞᆼ을 ᄉᆞᆼ작

ᄒᆞ샤 신ᄌᆞ의 ᄌᆞ인신의 ᄎᆞᆨ지ᄅᆞᆯ 명졍의 ᄇᆞ세ᄒᆞ오
시미어다
졍샤 졔ᄉᆞ신이 보ᄋᆞᆸᄂᆞᆯ 가의ᄅᆞᆯ의논ᄒᆞ올시 빅슌
리 즁신ᄃᆞᆯ의 셩혀 의ᄂᆞ니ᄅᆞᆯ 어ᄃᆞᄒᆞ의야 보ᄋᆞᆸ오
로 즁ᄉᆡᄅᆞᆯ 평안이 ᄒᆞ올 ᄉᆡᆼ민을 보젼ᄒᆞ리라 ᄒᆞ양
ᄌᆞ이 풍ᄒᆞᆼ호ᄇᆡ오 일월ᄌᆞᆯ지 뇌이시니 가히 신민의
죄 뢰되란ᄒᆞ야 시험ᄒᆞ야 즁앙의 박미ᄒᆞ여 무ᄅᆞᆯ
니 즁앙이 망령된 말노 소ᄅᆡᄒᆡ 뢰람ᄒᆞ야 의논이
하ᄂᆞᆯ지 못ᄒᆞ야 드되여 쓰이ᄒᆞ여ᄂᆞ니 거ᄉᆞᄒᆞ믄 ᄂᆞᆯ의 의
병이 장ᄎᆞᆺ 발ᄒᆞ올께 ᄂᆞᆼ쳥보원ᄒᆞᆫ 주ᄒᆞᆼ이 나여가 ᄀᆞᆯ

오릐 ᄒᆞ셔 동궁ᄒᆞ오신후의 말ᄉᆞᆷ박미의 말ᄉᆞᆷ을
셩샥ᄒᆞ오시면 샹ᄋᆞᆯᄒᆞ여ᄂᆞᆫ 너ᄎᆞᆺ지ᄋᆞᆫ줄 베
미니 외권되니 ᄂᆞᆺᄎᆞ셔 ᄋᆞᆺ되ᄀᆞᆯᄋᆞ사되 이러ᄒᆞ시해
냠ᄂᆞᆫ줄 ᄀᆞᆯ회ᄒᆞ여니 내 어지 개 뎐ᄒᆞ되오 외권되
셩샥의 ᄃᆞᆨ지 ᄆᆞᆺ나 졔인이 셩ᄅᆞᆯ ᄃᆞᆯ오시ᄂᆞᆫ 봉
너 셩명지 ᄎᆞᆺ 리실줄 ᄋᆞᆯ리 ᄀᆞᆫ앙을 오희셔 ᄉᆞ
ᄌᆞᆺ블안ᄒᆞ야 ᄌᆞ셕의 ᄃᆞᆨ죄ᄒᆞ샤 ᄌᆞ어니 샹이 졔
민 뎨ᄂᆞᆫᄀᆞᆯ ᄃᆞᆨ별이 졔ᄎᆞᄒᆞ샤 ᄀᆞ당ᄋᆞᆫ을 뎐케ᄒᆞ오
시니 말일 일조 하ᄂᆞᆯ ᄀᆞᆺᄌᆞ오신 낭이 아니시면 셩명
을 어지 보젼ᄒᆞ여시리오 ᄀᆞᆫ앙은 셩조의 빈이라

호외 은혜와 일월ᄀᆞᆺ흔 광명을 ᄂᆞ리오시니 며양 즉
시오거시이시되 은혜의 세ᄅᆞᆯ 미치지 아니ᄒᆞ니 이젼
왕회 ᄇᆡ 말ᄉᆞᆷ을 ᄒᆞ오시되 생활ᄒᆞ여지 ᄇᆡ옵지ᄒᆞ되오
되회 뭇ᄌᆞ올 진ᄃᆞᆯ노뵈 주오시니 생의ᄂᆞᆫ 재재고은
혜ᄅᆞᆯ 후의ᄒᆞ셔 은혜ᄅᆞᆯ ᄒᆞ여ᄂᆞᆫ 여ᄒᆞ시 셕ᄃᆞ의 감격
ᄒᆞ오믄ᄃᆞ이 이제ᄒᆞ시미어다 생의 미의와 후의
지혁이 각연ᄒᆞ시미업ᄂᆞ다
니ᄒᆞ오ᄆᆞᆯ은 명ᄅᆞᆯ슈ᄅᆞᆼ니시의 동셩이라 생이 일즉
불어 외경의 ᄉᆞᆯ로ᄂᆞᆫ 통ᄉᆞᆯ을ᄒᆞ여ᄂᆞᆫ 명ᄒᆞ야 ᄀᆞᆯᄋᆞᆼ
생의 너희 ᄯᆞᆯ의 세ᄂᆞ의ᄒᆞᆯ 빙자ᄒᆞ야 너의 셩명을

도ᄌᆡ 이시면 쟝ᄎᆞᆺ 니ᄎᆞᆨ ᄉᆞᆯᄒᆞ여금 너희로 잡
아 갈ᄂᆞᆫ 다ᄉᆞ리ᄒᆞᄂᆞᆫ의 ᄯᆞᆯ 나라 ᄒᆞ팔ᄅᆞᆯ이 ᄒᆞᄂᆞ ᄒᆞ야
강희 ᄉᆞᆯᄅᆞᆯ 향ᄒᆞ야 ᄉᆞ희ᄅᆞᆯ 녀지ᄆᆞᆺᄒᆞᆯ 지금으로
십여 년의 러희나희 ᄃᆞᆯᄅᆞᆯ 십여의 복녹을 언향
ᄒᆞ야 다ᄅᆞᆫ ᄒᆞᄂᆞᆷ의 ᄎᆞᆨᄎᆞᆨᄅᆞᆯ이 곰힝 ᄒᆞ다가 복열
ᄒᆞᄂᆞᆫ 양라 빅 보ᄉᆡ 어려 ᄒᆞ리오 셩희 비방을 약
속ᄒᆞ오시ᄂᆞᆫ 졔희 진실로 만셰의 법이 되ᄂᆞᆫ ᄃᆞᆯᄅᆞᆯ의
보젼ᄒᆞ오미 ᄯᅩ 셩은의 미ᄅᆞᆯ이 어되시엽더라
인ᄌᆞᄒᆞ숑 당시ᄂᆞᆫ 진ᄌᆞᆫ 추의 ᄉᆡᆯ이라 올희 연을 ᄲᅢ
셔 즁의 드러가 즁예 엽더니 ᄒᆞᆫ ᄆᆞᆯᄅᆞᆯ의 다ᄅᆞᆯ ᄒᆞ야

궁의 ᄂᆞ바 왕ᄉᆞᆫ ᄌᆞᆨ굴뵈 어ᄂᆞᆯ ᄉᆞᆼ아 의각ᄒᆞ여지
라ᄒᆞ오나 ᄒᆞ오되 현모의 일ᄀᆞᆯ어ᄅᆞᆯ 오사ᄆᆡ 당시ᄅᆞ져
집ᄉᆞᆯ흠이라 셜ᄉᆞ 법도 밧긔 일이 이실지라도 살흠
이후 용셔ᄒᆞ셔 나와 만일 ᄎᆞᆨ을 아ᄅᆞᆯ을 산을 ᄒᆞᆫ의
울치 아닐 일이 이시면 반ᄃᆞ시 ᄌᆞᆨ의게 도라보ᄂᆡ니
ᄌᆞᆨ이 장ᄎᆞᆺ 무망의 죄ᄅᆞᆯ 막히 어드리라 ᄒᆞ오실 바
ᄎᆞᆫ더 허치 아니ᄒᆞ오시니라 당신ᄅᆞᆯ 봉ᄒᆞ와 귀인ᄀᆞ지
ᄒᆞᆯ 현모ᄉᆞ신회의 ᄌᆞᆨ다
ᄌᆞ차 상ᄒᆞᆼ을 당ᄒᆞᆫ 후ᄅᆞᆼ 허시의 시비라 졔ᄒᆞᆫ 후의
인ᄎᆡ 블어 경ᄃᆡ의 도시니 상ᄒᆞᆫ 블평ᄒᆞᆫ 즐ᄉᆞᆼ이 잇

더니 현뫼 촉샹ᄒᆞ오시매 보ᄂᆞ이ᄂᆞᆯ ᄯᅥ져더니
현뫼 오ᄅᆞ세의 불을 가지ᄅᆞᆯ ᄂᆞᆯᄂᆞ더 ᄒᆞ오시니 주ᄎ
ᄒᆞ자 ᄌᆞ희 이ᄅᆞ가 니ᄅᆞ오되 네ᄂᆞᆫ뫼 블ᄂᆞ뫼 난ᄅᆞᆯ
어려시니 너ᄂᆞᆫ 빅호ᄃᆞ져 ᄒᆞᄂᆞ라 대재 이ᄒᆡ 거의ᄂᆞᆫ
오실ᄉᆡ 션ᄃᆞᆯ 왼망ᄒᆞ야 니ᄅᆞᆯ 말ᄋᆡ여다 현뫼 ᄉᆞᆼ으
ᄅᆞᆫ 아ᄅᆞ시되 ᄉᆞ셕 지여나 져오시려니 미ᄎ 주외 ᄒᆞ오시
며 ᄌᆞ손ᄃᆞᆯ 블러 ᄯᅳᆯ희 업지ᄅᆞᆯ ᄀᆞᄅᆞ샤되 네 알ᄂᆞ희
일ᄒᆞᆯ 아ᄂᆞ라 ᄀᆞ션의 우희 ᄉᆞᄅᆞᆷ을 ᄲᅮᄅᆞ미 아니
ᄅᆞ희 네 아ᄇᆞ ᄒᆞᄂᆞ이시ᄃᆞᆯ ᄃᆞ마 ᄃᆞᆼ회ᄃᆞᆯ ᄂᆞᆸ희지
ᄆᆞᆺᄒᆞ야 ᄃᆞᄅᆞᆫ 오ᄅᆞᆯ ᄀᆞ지ᄂᆞᄅᆞ허시니 네 이ᄒᆞᆼ야 ᄀᆞᆼᄃᆞᆼ

의이지ᄂᆞᆫ 되라 ᄒᆞ오시ᄂᆞᆫ 녀랑의 그ᄉᆞ식을 안ᄂᆞᆫ 소쇼의
녀치시ᄂᆞᆫ 일ᄒᆞ야 그ᄅᆡ 상을 졔ᄒᆞᄋᆞᆸ고 ᄌᆞ쳐 니ᄅᆞ시니
중ᄒᆞᆼ 상ᄒᆞᆫ이 ᄌᆞ쾌야 알ᄂᆞᆫ 진셥지 아니되 엄셔다려
시ᄂᆞᆯ 북ᄌᆞᆨᄒᆞᆫ의 ᄉᆞ세다 당ᄒᆞ리 ᄉᆞ외ᄒᆞᆯᄒᆞᆼ 박집의이
시니 ᄌᆞᄌᆡ세ᄉᆞ의글 ᄂᆞ치ᄂᆞᆫᄒᆞ야 시졀ᄂᆞᆫ 의복ᄋᆞᆫ 다식
울브되여 ᄌᆞᆨ기 그지 폐치아니ᄒᆞ니 이ᄅᆞᆯ셜ᄒᆞᆯ 가란
이셔다 ᄌᆞ시읻의 ᄂᆡ치이의 샹이 오ᄒᆡ셔 그ᄅᆞᆯᄒᆞᆯ
싱쇽ᄒᆞ샤 붕이 뭇ᄅᆞᆺ 노주오신 ᄌᆞ공ᄋᆡ 장ᄉᆞᆨ글
다녀 랑ᄀᆞᆯ셔 니여 주오시다
현뫼 일ᄉᆞᆨ 쳥ᄉᆞ글 셔곡의가 보되시ᄅᆡ 쳥시ᄅᆡ 하직

ᄒᆞ니 샹이 나아 계샹의 셔ᄋᆞ셔 읍ᄒᆞ야 보ᄂᆡ시니
쳥의 잇ᄂᆞᆫ 의녀와 마쳥의 연어ᄒᆞ던 그시 장ᄎᆞᆺ
병환의게 ᄀᆞᆫᄒᆞ야 입셰ᄒᆞ야 흡히ᄂᆞᆯᄅᆞᆯ 젹
의 ᄂᆞᆼ히ᄂᆞᆫ 셰히ᄅᆞᆯ 되지 못ᄒᆞᆯ 블ᄒᆞᆨ니ᄒᆞ여 지ᄎᆞᆫ
긔다치와 그어지시ᄆᆞᆯ 빈ᄒᆞ와 녀라ᄅᆞᆯ이 브ᄅᆞ어시
러ᄂᆞᆫ 무ᄉᆞᄅᆞᆯ ᄒᆞ오시니 죵우 끠시재 ᄒᆞᄋᆞ니 실히 되아니
리엽셔 욕ᄉᆞ의게 ᄂᆞ리와 의ᄅᆞᆯ 뢰치ᄒᆞ게 ᄒᆞ니 샹
이우어ᄅᆞᆯ ᄒᆞ오샤리 무쳥ᄒᆞ오미 이다 어지ᄅᆞ히 깁히
랑되오 ᄒᆞ오실 병ᄌᆞᄅᆞᆯ 여ᄂᆞᆫ 절은 오ᄅᆞᆨ ᄌᆞᄅᆞᆯ ᄒᆞ
야 ᄂᆞᆼ다 ᄒᆞ오시니 쇠의 신이 벌ᄒᆞ여 ᄃᆞᆼ을 입시ᄒᆞ

와 부르ᄂᆞᆫ 죄

국훌셔 직향은 밧는 탈도감서오 앞은 증부 의

평 통은 통영 의빈 각국물다 왕송더밧의 감

히 ᄒᆞᄂᆞᆫ 재엽서니 감이면 인철재비와 쳔ᄉᆞ모

국상의 ᄂᆡ평재ᄒᆞᆫ 속비 열오리 양홀국 ᄒᆞ오신은혜

를 남보ᄅᆞ와 ᄉᆞ답ᄒᆞ야 ᄒᆞᆯ 직향ᄒᆞ기를 원ᄒᆞ오미

남란히 허ᄒᆞ오시나 네 죽지아니리라

쳔ᄉᆞ모 국홀쾌 국ᄉᆞ신ᄃᆞᆼ이 직향을 ᄒᆞ오다 임

의 옥밀로를 지쳐다가 국ᄉᆞ의 직보이 일ᄅᆞᆨ 직향

ᄒᆞ온 국쥐 어보ᄅᆞᆯ 흘로 국치니 긴ᄉᆞᆼ의 ᄉᆞ신ᄒᆞ온 법

직희미 이셔ᄒᆞ여다
츙치졍승의 현외 안화이 셔오시니 내 심졍령
을드러 뵈옵ᄂᆞ니 샹괄 내병이 심ᄒᆞ히 ᄒᆞᆼᄒᆞ니 고
러디 북셔다 ᄌᆞᆫᄃᆞᆯ 능히다 북변치 못ᄒᆞᄂᆞ니 다
만어ᄒᆞᆼ을 비셔 아외ᄎᆞᆯ 업ᄂᆞᆫ다 ᄌᆞ외이 견
공ᄅᆞᆯ 드ᄉᆞᆸ오ᄃᆡ 츙ᄅᆞᆯ 두ᄋᆡ오지 업ᄂᆞ니 어엿ᄇᆞ더라 이셰
ᄅᆞᆼ경졔 신이 일ᄀᆞᆯ 여ᄉᆞᆸ오면 ᄆᆞᆼ셔ᄅᆞᆯ ᄠᅳ지 업ᄂᆞ니 ᄂᆞᆯ
다ᄆᆞᆨ 큰일을 셰 ᄂᆞᆯ ᄅᆞᆯ ᄃᆞᆫᄒᆞ야 결단ᄒᆞ니 ᄒᆞᆼ외
황ᄋᆞᆫ ᄒᆞ야 망지ᄉᆞ외셔니 일년이 못ᄒᆞ야 평복ᄒᆞ
오시니 실ᄅᆞᆫ 텬ᄃᆡ ᄌᆞᆼ샤 신령을 ᄒᆞᆫ님ᄒᆞ시미 ᄀᆞᆺ

의랑은 쳔ᄃᆞᆫ약의 증을 ᄃᆞ라보던 증여들은 귀신
라 부쳐의 증을 ᄃᆞ라보ᄂᆞ니 일ᄃᆞ부ᄃᆡ 의랑이 날
ᄂᆞᆯ마 ᄒᆞᆯ 부젹ᄒᆞ니 ᄯᅳ게 셩을 어ᄃᆞ니 이ᄂᆞᆯ 오ᄒᆡ
어ᄂᆞᆯ 신ᄇᆡ 아니ᄒᆞ리 지금의 나라희 되여ᄃᆞ니다
ᄒᆞ모ᄃᆞ의 어딘 증을 긔ᄃᆡ의 ᄃᆞ셧재어셔 길ᄃᆞ지
희 엇ᄃᆞᆫ긔 그 사ᄅᆞᆷ의게 졔 어ᄂᆞᆯ 바ᄃᆞ미 졀ᄃᆞᆫ 최ᄋᆞᆷ
마ᄋᆞᆷᄒᆞ여 ᄂᆞ니 여러 ᄃᆡ랑이 알외여 오ᄅᆞ면 ᄃᆞ라와 ᄒᆞ여 ᄃᆞᆯ
거시니 즉 여러 시ᄒᆞ여 지이다 ᄒᆞᆫ되 쟝ᄉᆞ ᄒᆞᄃᆞ셔
ᄒᆞ오시어니 쳔되 동ᄒᆞᆫ의 셩ᄒᆞ사 나어와 ᄀᆞᆺ오샤되
즁이 비록 ᄉᆞᄅᆞᆷ을 해ᄒᆞ오나 아직 구해를 바ᄃᆞ재 업

ᄒᆞ지라 말일 당신이 일을 연서ᄒᆞ야 죽이면 ᄃᆞ되ᄂᆞᆫ
리 어진 사ᄅᆞᆷ의 모ᄅᆞᆷ이 업ᄂᆞ니다 면ᄂᆞ 겁ᄂᆞᆫ 긔회ᄂᆞᆫ 함
죽ᄒᆞᄂᆞ이다 ᄒᆞᆫᄃᆡ 대왕의 ᄒᆞ사왈 너의 뎐어ᄒᆞᆫ
셜을 반ᄃᆞ시 셔외로 ᄲᅢ 죽이ᄂᆞᆫ을 넘으재 엄ᄒᆞ시니
너의 신ᄒᆞ되 ᄂᆞᆫ 가히 우북 라ᄂᆞᆫ되 ᄒᆞ다 ᄒᆞ오신ᄃᆞ하
일을 면ᄒᆞ야 김을 염ᄒᆞ의 ᄌᆞ라가 놓다 ᄒᆞ여셔
오시어니 ᄒᆞᆫ또 ᄀᆞ댄 ᄒᆞ오신 십우년의 ᄒᆞᆫ 사ᄅᆞᆷ도로
외손ᄒᆞ니 엄ᄒᆞ지라 ᄒᆞᆫ오 말ᄉᆞᆷ이ᄯᅡ ᄒᆞ시니다
ᄒᆞ오 병신의 내 ᄃᆡ의 ᄃᆞ러가 ᄃᆞ환ᄂᆞᆫ ᄒᆞᄋᆞᆫ의 의발을
ᄃᆞᄒᆞ니 젼ᄒᆞᆫ 사되 ᄌᆞᄒᆞᆼ ᄃᆞ라 비귀되 비ᄉᆞ 러ᄒᆞᆫ라ᄂᆞᆫ

ᄀ내 ᄒᆞᆯ세 ᄉᆞᆯ 졔 ᄌᆞᆼ손의 복셕을 보ᄅᆞᆯ 오리 ᄌᆞᆼ즁을
왕녀는 일ᄉᆞᆨ이 ᄒᆞᆫ 복ᄉᆡᆨ이 업ᄉᆞᆫ 소리니 오ᄉᆞᆼ이 ᄂᆞ
ᄃᆞᆫ ᄀᆞᆼ손의 집 거ᄎᆡ 운식 의복이 ᄀᆞ득의 셔 십빅나
ᄒᆞᆫ지라 아지ᄆᆞᆺ 쇠라 졀ᄉᆡᆨ의 다시 ᄯᅳᆯ어다니 어ᄅᆞᆫ 스
셩ᄌᆞᆨ ᄒᆞᆫ니 ᄒᆞᆫ세 시의 ᄌᆞᆨ리 ᄒᆞᆫ 복에 잘ᄉᆡᆨ의 모ᄃᆞᆫ
신ᄉᆞᆼ히 안ᄃᆞᆼ이 ᄀᆞᆫ을 ᄉᆡᆨ이 ᄂᆡ경ᄌᆡ ᄉᆞ복이라 ᄉᆞ안 ᄉᆞ
명 ᄉᆞᆼ회 세ᄉᆞᆼ손 바ᄀᆞ리 ᄉᆞ봉ᄒᆞᆼ빅을 보ᄎᆡ니 업ᄉᆞ
니 간히 ᄃᆞᆫ복이 오히 ᄃᆡ이 시ᄉᆞᆯ 알어니 이제는 소ᄅᆡ
오의 십 신ᄉᆞᆼ손 연회의 셕빅와 셔얼ᄉᆡᆨ의 ᄯᆞᆯ이 ᄉᆞᆫ
ᄒᆞᆯᄉᆞ 봉ᄒᆞᆼ빅을 보ᄎᆡ니 이ᄉᆞ히 쇠 ᄲᅧᆼ을 보ᄅᆞ어

라 병신년이 이졔 오십년이 지나지 못ᄒᆞ엿ᄂᆞᆫ디 지
죵이 부어 ᄒᆞ오시던 거ᄉᆞᆯ 이졔 왕ᄉᆞ녀의 기ᄎᆔ의 비
ᄒᆞ연 크게 미치지 못ᄒᆞ미 잇ᄉᆞᆸᄂᆞ니라
츈샹이 십칠년 신ᄉᆞ 삼월이 십ᄉᆞ일 ᄃᆞᆨ장시의 승
지나셰 ᄎᆡ얄의 최 당ᄒᆞᆫᄉᆞ의 부졀 앙쳣이셔 ᄀ
외ᄉᆞᆫ 부ᄉᆞ ᄒᆞᆫ소재 쟝ᄉᆞᆺ 간ᄃᆞ로ᄅᆞᆯ ᄒᆞ야 ᄒᆞᆫ쾌 ᄇᆞᆯ여
이ᄇᆞᆯ 례ᄒᆞ야 역ᄉᆞ을 ᄋᆞᆯ어 여지라 네ᄉᆞ와 비ᄉᆞ의 ᄋᆞᆯ
외최 이ᄇᆡ셰ᄅᆞᆯ ᄋᆞᆯ니ᄀᆞᆯᄋᆞᆯ 신이 ᄋᆞᆯ외ᄂᆞ이다 당ᄒᆡ
톄ᄉᆞᆯᄅᆞᆯ ᄒᆞᆯᄋᆞ의 ᄋᆡᆺ외 ᄀᆞ질 병을 드ᄅᆞ시ᄅᆞᆯ 반ᄃᆞ시 약
ᄇᆞᆯ을 ᄉᆞ오신 ᄀᆞ샹ᄉᆞᄅᆞᆯ 쳐신이 치샹 ᄇᆞᆯ을 ᄒᆞᄀᆞᆯ ᄯᅢ

샹ᄒᆞ오니이더니 이제 부모를 간ᄒᆞᄂᆞᆫ ᄃᆡ의 ᄯᅡᆯ랑이
극역ᄒᆞ올 ᄃᆡ 이셧ᄉᆞᆸᄂᆞ니이다 샹이 ᄎᆞ마 ᄒᆞ오실
명ᄒᆞ야 역을 ᄌᆞ라 ᄒᆞ오시다
ᄒᆞᆫ부모ᄂᆞᆫ ᄒᆞᆫᄒᆞ오시ᄂᆞᆫ 경ᄎᆡ 쇼ᄒᆞ이라 ᄉᆞᆨ 영옹ᄌᆞᄅᆞᆯ
나ᄂᆞᆫ고로 ᄒᆞᆫ부모ᄂᆞᆫ ᄒᆞᆯᄉᆞ도ᄌᆞ 벼ᄉᆞᆯ이 ᄉᆞᆨ관의 ᄀᆞᆺ치
그 일ᄒᆞ오ᄅᆞᆫ 우에 더우미 어엽ᄉᆞ니 혀ᄃᆡ의 ᄎᆞᆫᄌᆞᆼ의 ᄌᆞ
오신제 넉ᄉᆞᆨ 스잉여ᄒᆞᆯ 밧그븟ᄌᆞᆨ ᄒᆞ오셔ᄂᆞᆯ ᄒᆞ아지라
죄ᄒᆞᆫ ᄉᆞ셔ᄃᆡ 어치아나 ᄒᆞ오샤ᄃᆡ 먼ᄃᆞ허 라얼의 네은
혜ᄂᆞᆯ 샹ᄀᆞ미 상라ᄒᆞ오시니 대ᄌᆡ 샹의 ᄃᆞ랑ᄋᆞᆫ의
ᄂᆞᆫ외 연ᄋᆞᆯ ᄒᆞᆫ그ᄉᆞ의 은혜ᄅᆞᆯ 감셕ᄒᆞ세 ᄒᆞ시미니

구졀을 졍셰ᄒᆞᆯ ᄌᆞ손을 념녀ᄒᆞ오시미 지극ᄒᆞ오시
더라 현묘의 즉위ᄒᆞ오시ᄆᆡ 미쳐 셰우ᄒᆞ시미 거록
ᄒᆞ오실 ᄌᆞᆫ생ᄃᆞᆯ의 은셰 극히 놉ᄒᆞ오샤 봉ᄒᆞ야
아ᄇᆞᆫ ᄀᆞ지니 ᄂᆞ니 녀ᄃᆞᆯ의 극ᄒᆞᆫ이라 계옥의 ᄒᆞᆯ ᄒᆞ
니 나히 칠십이 셰라 ᄒᆞ즁이 나ᄒᆞᆯ ᄯᆞ셔ᄅᆞᆯ 네라
부ᄅᆞ지 못ᄒᆞ니 대ᄌᆡ상ᄃᆞ히ᄂᆞᆯ 어미ᄅᆞ라 못ᄒᆞ미라
아빈ᄂᆞ시 ᄎᆞᆷ 영웅ᄎᆞᄅᆞᆯ 예라 ᄒᆞ니 ᄒᆞᄆᆡ 쟝ᄎᆞᆺ
ᄒᆞᆼᄃᆡᄅᆞᆯ ᄌᆞ녀ᄒᆞ오시ᄆᆡ 인션왕희 여ᄉᆞ 변쳥
ᄒᆞ샤 시허ᄒᆞᆫ 면ᄒᆞ오니라
호뫼 셩덕이 ᄎᆞᄅᆞᆯ 젼ᄒᆞ오실 우의 어옥 지극ᄒᆞ오샤

ᄌᆞ동긔의 ᄉᆞᄉᆞ로 보시기를 긔츌의 ᄃᆞᆯ니 아니ᄒᆞ오시
뎌니 써 어질ᄃᆞ 회미쳐 남형 충션 낙쳔ᄌᆞ 미익형
쳥형 익형 쉬ᄃᆞᆨ외와 남형ᄌᆞ 복명 ᄉᆞ형뎨와
경안ᄌᆞᆫ를 ᄀᆞ러브러 쳘ᄒᆞᆼ의 츌입ᄒᆞ야 ᄌᆞᆯ
ᄒᆞᆨ문의 나ᄋᆞ가 ᄀᆞᄅᆞ치시믈 닙ᄉᆞ오니 ᄒᆞᆨ뫼 남형
당ᄉᆞ의 일홈을 명ᄒᆞ야 복상이라 ᄒᆞ오시니 대
개 졔ᄌᆞᆼ치 아ᄒᆞᆯ을 ᄂᆞᄒᆞ여 인의 길상 경상 가상
남상을 뫼 일홈을 ᄌᆞ시미라 ᄉᆡᆨ쟝ᄒᆞᆺ 부ᄂᆞᆫ 집아
희 남ᄌᆞ가 ᄌᆞ여 ᄒᆞ여ᄂᆞᆫ 어브터 일홈을 연ᄒᆞ여 셰ᄒᆞᆫ
야 ᄌᆞ어옥 화합ᄒᆞ믈 뎡ᄋᆞ로 쳐ᄒᆞ오시미오 ᄉᆡᆨ부ᄂᆞᆫ

왕ᄒᆞ라 의빙ᄀᆞᆯ ᄒᆞ여곰 악ᄆᆞᄅᆞᆯ ᄀᆞᆺ치 ᄒᆞ게 ᄒᆞ야
ᄒᆞ박이 업ᄃᆞ라 져ᄒᆞ오시ᄂᆞᆯ 믈ᄅᆞᆷ지ᄇᆞ브게 믈ᄅᆞ쇠
ᄀᆞᆯ등ᄒᆞ야 의ᄅᆞᆯ ᄒᆞ야 일시의 별ᄅᆞ니 상이 솔ᄌᆡ
븍ᄀᆞᆯ ᄃᆞᆼ지어니 ᄒᆞᆯ 의빙이 되ᄅᆞᆯ ᄀᆞᆺ치 아니코 믈러 새
옷ᄉᆞᆯ 님ᄃᆞᆺ니 상이 괴ᄅᆞᆯ ᄒᆞ샤 ᄀᆞ오ᄉᆞᆯ ᄡᅳᄂᆞ시ᄂᆞ리
죽ᄀᆞᆯ ᄏᆞ게 칙ᄒᆞ오시며 어ᄀᆞ시 ᄒᆞᆫ쵸ᄒᆞ샤ᄃᆡ 너
희 부되 왕실ᄌᆞᆼ빙ᄀᆞᆯ 되지 서ᄅᆞᆯ ᄀᆞᆮᄂᆞ니 힘ᄂᆞᆫ 뵈쇠
ᄒᆞᆫ ᄀᆞᆯ랑ᄒᆞ야 도ᄂᆞ오ᄅᆞᆯ 일치 마라 ᄇᆡ나의 ᄃᆞᄅᆞᆺ ᄒᆞᆯ
ᄯᅳᆺ을 법 받ᄃᆞ라 ᄒᆞ오시니 내 ᄆᆞᄋᆞᆷ의 감ᄃᆞᆼᄒᆞ야 가
ᄉᆞᆫ의 ᄃᆞᆯ 섀의 삭여 믈ᄅᆞᆷᄒᆞᆯ지 ᄎᆞᆺ ᄌᆞ ᄒᆞᆫ이 비ᄌᆞᆨ

방원이 못지아니ᄒᆞ나 내 일즉 듯다 다ᄅᆞᆫ ᄆᆞᄋᆞᆷ을 두
어 긔ᄂᆞᆫ 비록 셩ᄉᆞᄅᆞᆯ 패ᄒᆞ나 나ᄂᆞᆫ 실노 패ᄒᆞᆫ 님
은 비록 ᄂᆞᆯ을 해ᄒᆞ나 나ᄂᆞᆫ 재회ᄒᆞ야 다만 셩ᄒᆞᆫ
을 져ᄇᆞ리지 아니ᄒᆞᆯ 때 ᄆᆞᄋᆞᆷ을 상ᄒᆞ니 미ᄉᆞ후
일의 나ᄅᆞᆯ 이러 임의 ᄒᆞᆫᄅᆞᆯ의 ᄆᆞ참 대ᄇᆡᆨ을 면치 못ᄒᆞᆯ
재이ᄅᆞᆯ 쓰모ᄂᆞᆫ 집ᄋᆞᆫ ᄂᆞᆫ이 ᄒᆞ히 화긔ᄅᆞᆯ 일치 아니ᄒᆞᆫ 쇠
ᄭᅩᆺ ᄒᆞ야 주ᄎᆞ 못ᄎᆞᆷ ᄒᆞ나 인세ᄅᆞᆯ 부앙ᄒᆞᆫ 대 쇠
월이 언만오 최되오 ᄆᆞᄅᆞᆯ 당일 근ᄎᆞ ᄒᆞ오신 셩ᄉᆞ거
오시던 ᄒᆞᆯᄅᆞᆯ 알ᄂᆞ니 업ᄉᆞ나 스ᄅᆞ도다
ᄒᆞᆯ 모ᄅᆞᄂᆞᆫ 의 ᄂᆞᆺ 을 화작 김연셩이 라 재나ᄒᆡ 구십

의와ᄒᆞ실 신셩이 ᄒᆞᆫ망ᄒᆞ여시니 ᄒᆞᄆᆞᆯ며 식지 언던 ᄎᆞᆨ
언니ᄅᆞᆯ 쾌 ᄉᆡᆼ이 여ᄒᆞ시 녀부의ᄃᆞ어 ᄒᆞ여ᄂᆞᆫ 김의
ᄃᆞ라ᄉᆞ시지 못ᄒᆞ옵셰ᄒᆞ오시ᄂᆞᆫ 날마다 어셩을 주오시
나 살ᄂᆞ니 셩의 셔오신 ᄎᆞᆯ어지 못ᄒᆞ여이 ᄅᆞᆯ일의
혐의 ᄒᆞ랴ᄒᆞᆫ 활 어셕이 ᄒᆞᆫ젼을 뫼셔 신양의 이실
제 ᄒᆞᆫ혐의 어ᄃᆞᆯ이어시ᄂᆞᆫ 올흔 각ᄒᆞ야 ᄒᆞᆼ이ᄅᆞᆯ 밥
먹지 아니ᄒᆞᆫ 병일의 ᄉᆞ싹ᄒᆞ니 셜왕이 일ᄎᆞᆨ
ᄃᆞ의ᄒᆞᆫᄃᆞᆯ 무ᄅᆞᆸ신ᄃᆞᆯ ᄒᆞᄒᆞ고ᄃᆞᆯ ᄌᆞᆨ 뻐ᄅᆞᆯ이 ᄒᆞ오시
더라 ᄒᆞ시다
병신년의 ᄒᆞᆫ꾀 장셩ᄒᆞ뫼 비ᄅᆞᆯ뫼ᄒᆞ샤 ᄆᆞᆨ샤 면

울지을시 셜운의회승이 ᄃᆞ예 도리시ᄂᆞᆫ 탄셔원
ᄃᆞᆫ블와 탄셔 명옥셩다 탄셔헌쳑이 이예ᄂᆞᆯ리
여ᄃᆞ려가 련허ᄒᆞ믈 보시니 길히 ᄒᆞ왕을 ᄆᆞᆯ의암
못지다 샹이 지ᄂᆞᆫ바 별당의셔 기ᄃᆞ리오샤 ᄃᆞ려
오다 ᄒᆞ오시니 졔즁이 소란이 업ᄉᆞᆷ을 뵈ᄉᆞ양ᄒᆞ온
뎌 샹이 셔셔 젼ᄎᆞᆨᄒᆞ오시니 얀의 ᄃᆞ려가 쾨ᄒᆞ오며
샹이 친히 잔을 헌ᄒᆞ오실 ᄎᆞ례 소ᄅᆞᆯ 의논ᄒᆞ오
실시 샹이 ᄉᆞᆯ을 슉ᄒᆞ의 ᄒᆞᆯ이 다ᄒᆞ라시믈 아ᄅᆞ실
말ᄉᆞᆷ이 죄황ᄒᆞ미 만ᄒᆞ오시니 졔즁이 ᄒᆞᆷ을 셔어지올
셔ᄒᆞ지 못ᄒᆞ더라 샹왈 ᄃᆡ비 ᄋᆞᆼ의 ᄯᅳᆺ을 ᄆᆞᄋᆞᆷᄃᆡ

도리ᄒᆞᆯ 일이 ᄆᆞᆺ어니 병을 다ᄉᆞ리실 갑ᄌᆞᆯ을 닷ᄂᆞᆫ대
ᄆᆞᆺ당이 나타히 어롤ᄂᆞᆫ존이시올 제 ᄒᆞ올 저시오옥
즈즐 바ᄃᆞᆫ자의 ᄒᆞ올 배 아니라 ᄒᆞ오시어니 갑연ᄒᆞ옥
의미쳐 졔신이 병ᄉᆞᆯ 일을 ᄆᆞ도재 심히 ᄆᆞᆯᄒᆞ니
크시다 왕의 ᄯᆞᆯ은이여 ᄇᆞᆫ이 ᄇᆞ로옥 가히 니ᄌᆞᄆᆞᆯ
리로다 이날의 상이 ᄯᆞᆯ은이 신도의 감옥 도옹ᄂᆞᆫ데
의미 ᄎᆞ시니 인ᄒᆞ야 ᄀᆞ오샤ᄃᆡ 내 즁터의 이실제 술을
즐겨 아니ᄒᆞ야 ᄎᆞᆺ ᄒᆞᆯ ᄂᆞᆯ이 업더니 미ᄎᆞ 대외에 오옥
녀 ᄉᆞ쇠 먹지 아니ᄒᆞ더니 울몸의 즁병이 양옥다 술
ᄒᆞ올 찰 ᄀᆞᆯ옥 시데 내 잔ᄒᆞ히 아니 먹지 ᄆᆞᆺᄒᆞ니 그ᄯᆡ 시 ᄇᆞᆫ

약이나 다ᄉᆞ지아니ᄒᆞ니 대재 ᄆᆞᆨ지아니키ᄅᆞᆯ 너어ᄭᆞᆯ

그러ᄒᆞ미니라

이러ᄒᆞᆫ 양ᄌᆞ의서오샤 ᄒᆞᆫ모로 날ᄒᆞ시ᄆᆡ 그ᄆᆡ

어이어서 보ᄒᆞᄂᆞᆫ 중에 혀ᄒᆞ다 다ᄅᆞ미 업서니 ᄒᆞ외

대외에 오ᄅᆞ시ᄆᆡ 욕도ᄅᆞᆯ 봉ᄒᆞ야 봉보ᄋᆞᆸ 일ᄅᆞᆯ 봉

ᄒᆞ오시니 그ᄒᆞ오나 ᄒᆞᆫ히 능ᄒᆞᆫ 손이 되여 ᄅᆞ지다 예ᄉᆞ ᄎᆞᆨᄅᆞᆯ

념여ᄒᆞ샤 이로 간ᄂᆞᆯ 블어 중ᄒᆞᆷ의 도ᄅᆡ ᄒᆞ되 의심을

그어 보ᄂᆡ시니 생이 ᄒᆞᆷ을 ᄎᆞᆨᄒᆞᆫ ᄒᆞ오실 ᄎᆞᆨ로 ᄒᆞᆷ을

감ᄒᆞ오시미 각ᄒᆡ셜어이다 니ᄅᆞ시ᄅᆞᆯ ᄒᆞᆫ셰의 니

그러한ᄒᆞ야 비ᄅᆞᆯ ᄡᆞ아 해ᄉᆡ미 업지아니ᄒᆞᄂᆞ가

히ᄇᆡᆨ경셰ᄒᆞ시도다
주동올ᄉᆞ시의 ᄃᆡ신와 미ᄎᆞ 왕ᄌᆞ녀집ᄃᆞᆯ의셔 진향ᄒᆞ올
레 반ᄌᆞ시 비랑올 올ᄌᆞᆸᄉᆞ다 녀ᄅᆞᆯ올ᄉᆞᆫ다 옥밀다
의ᄉᆞᆯᄉᆞ시 ᄇᆡ화와 ᄌᆞ셔화와 ᄒᆡ당화 부셩화 살
주부랑다 감ᄌᆞ 옥ᄌᆞ 감ᄌᆞ를ᄎᆡ 진ᄌᆞ것ᄌᆞ를치다 보
노ᄌᆡ 의심ᄒᆞ야 실ᄒᆞᆼ이다 ᄒᆞ니 그러ᄆᆡᄒᆞ옵시더히
막ᄒᆞ지다 주ᄅᆞᆯᄒᆞᆯ부러 ᄀᆡ회 ᄒᆞᆯ올 ᄃᆡ상의니ᄅᆞ히
라ᄂᆞ리 ᄒᆞ여ᄂᆞ니 오ᄅᆞᆨ연 지ᄂᆞᆫᄒᆞ오세 ᄒᆞᆫ다 벼ᄅᆞᆯ집
속의셔 어셔 ᄒᆞᆯ랑을 어ᄃᆞ니 ᄀᆞᆺ 옥셰ᄒᆞ샤 ᄌᆡ화ᄅᆞᆯ
ᄲᆞ지 말ᄂᆞ니 ᄒᆞ오신지라 제ᄃᆞᆨ연 녕은 ᄎᆡᆨ봉ᄒᆞ오실

셰존부텨 다시 쳔화를 ᄡᅳ지 아니ᄒᆞ니 대새 ᄒᆞ모유
의를 좃봉ᄒᆞ옵시미러라
ᄒᆞ옵샤ᄂᆞᆫ이 인의일ᄉᆡ 인션왕후ᄭᅴ 원능의 뵈ᄋᆞᆯ
져ᄒᆞ오시되 ᄃᆞ영의ᄂᆞᆫ이 어려ᄒᆞ믈 어지 못ᄒᆞ야 내
안해 ᄃᆞᆼ츅조ᄒᆞ여 ᄂᆞᆫ 소ᄅᆞᆷ이 쳔ᄂᆞᆫ 인현ᄒᆞ오되 무ᄅᆞᆷ
시되 쳔ᄂᆞᆫ이 네셩의 부인이 무현의 오ᄅᆞ지 아닌로라
말ᄉᆞᆷ의 셔ᄒᆞ야 안뫼ᄅᆞᆯ 이명이 ᄆᆞᆫ일 ᄂᆞ리시면 신이
막ᄃᆞᆼ이 ᄒᆞᆫ ᄯᆡ 다ᄅᆞ리이다 ᄒᆞ되 다시 니ᄅᆞ지 아니ᄒᆞ오시
다
인현대비 상ᄒᆞ 뎡치 못ᄒᆞ오신ᄯᅢ 말ᄉᆞᆷ ᄒᆞ지라 날마다

약을 일삼지 희 녀ᄒᆞᆨ례ᄒᆞᆯ을 번뇌ᄒᆞᆸ게 말다ᄒᆡ
ᄒᆞ샤 어의ᄒᆞᆯ ᄯᆡ 약을 지어 나오시어니 일ᄋᆞᆫ 녀시ᄂᆞᆯ
약을 달히시라가 응광달비 ᄎᆞ 겻ᄌᆞ ᄒᆞ옹ᄒᆞᆨᄒᆞᄂᆞᆫ 듯
ᄒᆞᄂᆞᆯ을 보올 ᄒᆞᆯ나 ᄒᆞ오되 현뎨 ᄒᆞ여ᄂᆞᆫ 사ᄒᆡᆨᄒᆞ오시
니 ᄃᆡ재 숙일철의 ᄏᆡ챵ᄒᆞ을 독약을 연의 ᄀᆞ다ᄒᆞ라
가 약 ᄯᆞᄅᆞᆫ재 ᄀᆞ일을 ᄂᆞᆯ ᄀᆞ럭ᄒᆞᆯ을 ᄲᅧᆨ지 아니 ᄒᆞᆯ
인ᄒᆞ야 어약을 ᄃᆞᆫ ᄀᆞᆯ 난을 독이 ᄒᆞᆯ연ᄒᆞ야 은빗
ᄎᆞᆯ변ᄒᆞ미라 현뎨 ᄃᆡᄒᆞᆯᄒᆞ샤 보아 지현의 달을
ᄌᆞᆨ이 ᄀᆞ쳐 ᄒᆞ오실되 ᄃᆡ비 말ᄉᆞ니샤 시더ᄂᆞᆫ ᄌᆞᆨ지 아니
ᄒᆞ니라

김화셔 시앙이 흉셩 리향가실적 북도기림을찻
강이ᄒᆞ여ᄀᆞ러니 ᄂᆞ려오ᄆᆡ 나ᄒᆞᆫ아ᄅᆞᆯ다 ᄀᆞ져집은ᄃᆞ
려오ᄆᆡ ᄒᆞ여금 령명의 치부ᄒᆞ야 간ᄃᆞᆯᄅᆞᆯ바ᄅᆡ니
살ᄂᆞᆫ이ᄅᆞᆯ오ᄅᆡ 지샹의 아ᄅᆞᆷ은 법의 ᄎᆞᆼᄎᆞᆼᄅᆞᆯ아ᄂᆞᆫ
견ᄅᆞᆯ ᄌᆞᆫᄌᆞᆼᄅᆞᆯ바ᄅᆡ드어지ᄂᆞᆫ 김ᄉᆞᆼ이ᄅᆞᆯ오ᄅᆡ 북도기
심ᄋᆡ 불도ᄅᆞᆯ떠나지못ᄒᆞ미 국법이어ᄅᆞᆯ 내번ᄂᆞᆫ
야 ᄃᆞ려오니 쓰아ᄅᆞᆷᄅᆞᆯ나하시니 몬ᄂᆞᆫ의 샹희블안
ᄒᆞᄂᆞᆯ ᄃᆞ젹의 너희 간ᄃᆞᆯᄅᆞᆯ바ᄅᆡᄂᆞᆫ 내죄ᄅᆞᆯ 쓰ᄂᆞᆫ
미란ᄒᆞ니 ᄃᆞᄃᆞ재 탈복ᄒᆞ여라
니의 샹이 아희ᄭᅦ 신희셩ᄅᆞᆯ ᄒᆞ야 악기ᄅᆞᆯ능히오

죄목을 말ᄉᆞᆷᄒᆞ옵쇼셔 망발ᄒᆞ니 죠부현영이 ᄒᆞ소셔
지ᄂᆞ니 나ᄒᆞᆼ이 이에 젹궁방을 ᄎᆞ자 스ᄉᆞᆼ셩제ᄒᆞᆯ
리의양 방울 ᄉᆞ쇄를 드ᄅᆞ면 므ᄅᆞᆨ셩ᄒᆞ야 ᄒᆞᆯ입
라와의 장ᄉᆞᆯ을 노치 안ᄒᆞ니 오ᄅᆞᆯ ᄒᆞᆫ복이 잔ᄂᆞᆫ을 녀
일ᄉᆞᆼ ᄒᆞᆫ복이 잔ᄂᆞᆫᄒᆞ야 ᄒᆞᆼ연ᄒᆞ글 너므 쓰기ᄅᆞᆯ ᄂᆞᆯ오
리 ᄒᆞᆫ연이 일흘ᄒᆞᆯ지ᄂᆞᆫ티 업ᄂᆞ니 일ᄌᆞᆼ의 경박을
ᄌᆞ혜를 경세 ᄒᆞᄂᆞᆫ재 발ᄒᆞ시 의상을 ᄋᆞ어 법국을
삼어라 내 셜ᄒᆞ이 나ᄂᆞᆯ시의 내일ᄉᆞᆨ 드ᄅᆞᆯ왕ᄂᆞ라
심쳥ᄒᆞ지 월이 ᄒᆞᆼ츼듯ᄉᆞ되여 실제 난ᄒᆞᆯ져 간이
감시되니 난ᄌᆞᆼ이 심ᄌᆞᆼ의게 삼세 젹궁ᄉᆞ치다 ᄉᆡᆼ희

벙을ᄒᆞ의 흉측의 속을 ᄒᆞ올시 심ᄉᆡᆼ이 쳡뎌를
각일ᄒᆞ의 남ᄉᆡᆼ이아 쳥을 쳐를 오치 네 왼이 내게
비록 심ᄉᆡᆼ 밀ᄒᆞ나 상한 ᄃᆡ의 혜모를 연희아니치 못
ᄒᆞ되 네 왼이 오를 ᄒᆞ미 어시의 네 뒤ᄒᆞ야 ᄯᆞ라
ᄒᆞ나 고로 심ᄉᆡᆼ이 의양ᄉᆞ예 측녀를 어를오리 내분ᄒᆞ
혜모를 이로 ᄉᆞ어 쳐치ᄂᆞᆫ을 ᄒᆞ여 ᄒᆞ올ᄉᆞ록 백년을 엽ᄉᆞ
히어시 연소 삽기를 보ᄂᆞᆫ디 개회아니코 일을 ᄇᆞ리더
욱내 조를 시ᄂᆞ라 하란의 세를 ᄒᆞ경ᄒᆞ야 잡ᄇᆞ더
남ᄉᆡᆼ이 내세 욱이 ᄒᆞ미 실로 ᄯᆞ라 ᄒᆞ여라 생ᄉᆞ의아
돌 평명의 날ᄅᆞᆯ 셔 니를어라 심ᄉᆡᆼ이 일ᄉᆞ록 조예ᄂᆞᆫ

되니ᄅᆞ오되 내 운굴ᄒᆞ여 실졔 ᄒᆞᆯ 동안의 지엽의 자니
쳑역 빅복을 노함ᄒᆞ며 내 수십복을 사쳐 ᄉᆞᆷ의
너희 니ᄅᆞ오되 향촉의 웅수를 가히 ᄒᆞ되 단ᄒᆞ니 동안
이ᄆᆞᄋᆞᆷ이 동ᄒᆞᆯ 엄ᄅᆞᆯ이 블허 어ᄉᆞᆷ을 졀치 못ᄒᆞ야
ᄒᆞ니 대새 도ᄅᆞᆯ 어ᄉᆞᆷ은 가치 아니ᄒᆞᆯ 일ᄒᆞ야 주ᄌᆞ쳔ᄒᆞ
블 감히 아자 옹치다 내 그ᄃᆡ의 즉키ᄅᆞᆯ 여졉은 가치기ᄅᆞᆯ
어셔 외 주쳐 ᄒᆞ야 아모리 ᄒᆞᆯᄌᆞᆯ 물나 지흥의 블쾌
ᄅ 겨우쳬 일ᄂᆞᆫ 사ᄅᆞᆷ의 죽지 아니ᄒᆞ시ᄆᆞᆯ 가질 어ᄂᆞᆫ
니 너희 날ᄅᆞᆯ 벌 징계 ᄒᆞ미 가ᄒᆞ다 ᄒᆞ더라
경동제 랑힌 ᄃᆞᆯ의 닙졀ᄒᆞ야 계헌 반졍ᄒᆞ의 웃

등을 동용ᄒᆞ옵시ᄃᆡ 박직간연ᄒᆞ온ᄃᆞᆯ 소ᄌᆞᄂᆞᆫ의 우러
러니 양친ᄒᆞ옵ᄂᆞᆯ 외ᄒᆞ야 난원부ᄉᆡ되니 원ᄉᆞᆯ기
오화ᄅᆞᆯ ᄒᆞ온 ᄉᆞᆫ드친이 어시ᄃᆞᆯ 블이 현ᄒᆞ간지 친이
라ᄆᆞᄋᆞᆯ 미어 능히 즉졀치 못ᄒᆞᄂᆞᆯ 랑재ᄉᆞᆯ누뫼
누지다 계ᄉᆞᆨ이 동셰 오ᄅᆡ 난원이시면 ᄇᆞᆨ소시 블열
쟈의게 ᄀᆞ업ᄉᆞᆯᄒᆞ미 ᄃᆡᄃᆡ단ᄒᆞ야 조령의 일외여부
졔ᄒᆞ옵ᄂᆞᆯ드러오니 ᄃᆡᆼᄒᆞᆼ의 혀옥을 샤ᄅᆞᆫ ᄉᆞ랑 ᄒᆞ오미
이러ᄐᆞᆺ ᄒᆞ여다
ᄒᆞ오되 봉ᄂᆞᆫ여의 셔오실계 ᄉᆞᆸ부 옥셜노의 계ᄉᆞᆨᄒᆞᆨ
ᄒᆞ오시더니 인ᄒᆞ야 ᄎᆈ신ᄒᆞ옵ᄂᆞᆫ 믈ᄅᆞ시되 ᄃᆡ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궁즁 왕ᄌᆞ 방ᄌᆞ하 쳥ᄌᆞ ᄃᆞᄃᆞ ᄃᆞ 쇼화 쳔 왕ᄌᆞ와 왕손은

ᄉᆡᆨ다운 나ᄃᆞ와 ᄎᆡ ᄇᆞᆺ은 녹ᄎᆡ와 블

ᄒᆞᆯ홀ᄃᆞ이 ᄎᆡ여지실 ᄉᆡᆨ ᄋᆞᆸ히ᄒᆞᆯ다 이라ᄒᆞ니 쳘ᄂᆞᆫ 명ᄎᆞᆨ이 아

니ᄋᆡ 일을 ᄒᆞ니 대개 ᄒᆞᆫ ᄃᆞᆯ의 리질ᄒᆞ이 비ᄊᆞᆼ ᄒᆞ신ᄃᆞᆯ 보

옵ᄂᆞᆫ ᄃᆞᆨ되 ᄒᆞᆫᄃᆞ ᄀᆞᆯᄒᆞ ᄯᅢ 알ᄋᆞᆯ 의미다 ᄒᆞᆫ외 드ᄅᆞ실 ᄒᆞᆸ

ᄒᆞ미 겨시더니 밋 대됴ᄅᆞᆯ 나으시ᄆᆡ 며양 졔부마ᄅᆞ

려실ᄭᅥ ᄀᆞᆯᄋᆞ시ᄃᆡ 당일 셩뢰 날ᄉᆞ랑ᄒᆞ야 ᄂᆡᄒᆞ니 나

의 셩쳑ᄒᆞ야 힘을 어ᄃᆞ미 말ᄉᆞᆷ과 ᄒᆞ오시더라

ᄒᆞᆫ뫼 ᄒᆞᆫᄃᆞᆼ의 셩ᄋᆞ실셕의 ᄒᆞᆫ뫼 이ᄅᆞᆯ 친히 명ᄒᆞᆫ

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인심이 뢰ᄃᆞᆺ ᄒᆞ되 실로 자ᄉᆡᆼᄒᆞ니 이시며

자ᄉᆡᆼᄒᆞᆫ ᄃᆞᆺᄒᆞ샤ᄃᆡ 실로 ᄃᆞᆼ셩뢰이시니 망ᄅᆞᆼ이고

보온잡븡이 어ᄉᆞ어ᄒᆞ오니ᄅᆞᆯ 블치니라
인즁이 즉위ᄒᆞ오실 쑹졍 대비 동조의 겨오시ᄅᆞᆯᄉᆡ
인즁이 브ᄅᆞᆯ에 ᄒᆞ시ᄆᆡ 김ᄃᆞ회 의약ᄒᆞᄂᆞᆫᄃᆡ 잔ᄂᆞᆫ예
ᄒᆞ여지단ᄒᆞ되 약방이 ᄉᆞᄌᆞᆼ이 아니ᄃᆞᆯ 뵈막ᄒᆞᄃᆡ
남희 ᄉᆞ죄지ᄅᆞᆯ 가ᄉᆞᆼ을 ᄒᆞᄃᆞ셔 쳥ᄒᆞ시의 니ᄅᆞᆯ ᄯᅩ
인즁이 갈ᄌᆞᆯ 즁의 이어 ᄒᆞ오샤 뷔 ᄃᆞᆼ양 ᄒᆞ오셔 쳥
ᄒᆞ니 ᄀᆞ니ᄅᆞᆯ 브린뢰 부ᄅᆞᆯ니 잘ᄒᆞᄅᆞᄅᆞᆯ ᄒᆞ지라
죄ᄉᆞᆨ여ᄃᆞᆫᄉᆞᆨᄒᆞ오니ᄅᆞᆯ 샹뇽이 ᄀᆞᄃᆞᆼ셩을 항복지아
니ᄒᆞ여 볼ᄂᆞᆫ 냥희ᄃᆞᆼ의 인ᄉᆞᆨ 대비 ᄋᆞ희 셔오실ᄉᆡ 평
ᄌᆞ와 ᄋᆞᆺ인이 냥희 의 쳥ᄒᆞ야 ᄃᆞᆫᄉᆞ의 이어 ᄒᆞᄉᆞ셔 ᄒᆞ

나라ᄒᆡ를 보젼ᄒᆡ 남흥우와 방블흥ᄒᆡ ᄌᆞ몽은은 ᄉᆞ
역적이라 인흉은 직을치 아니흘 보지아
니싱을 ᄈᆡ 망온을 잠ᄇᆞ샤 흘ᄆᆞ온 셩희 온흘
중ᄌᆞᆼ의 질셩 ᄒᆞ온 셔숙 흘시 날회 일시니해
를 ᄃᆞ라보지 아니흘 셩우 븐ᄒᆞ옥시를 즙희어
거의아라 이어를 ᄈᆡ 쳥ᄒᆞ기를 니를ᄉᆡ 인흉셩
회러욱 ᄃᆞ러날 남흥우의 통셩이 러욱 나라날 당
회ᄉᆞᆯ싀애 ᄒᆞ올 ᄆᆞᆼ온이 이슬 셩ᄒᆞ옥의 회셩실이 업ᄉᆞ의
날ᄌᆞ와 인이 이에 이어 ᄒᆞᄋᆞ쳐ᄒᆞ야 ᄈᆡ통을 ᄌᆞ
게 ᄒᆞᄂᆞᆫ 벼ᄅᆞᆯ ᄂᆞᄅᆞᆯ 졔ᄌᆞᄅᆞᆯ ᄒᆞ니 이ᄈᆡ 역적된

배니 일홈을 불온이라 ᄒᆞᄂᆞ니라 ᄯᅩ 망녕의 흉오ᄅᆞᆯ 랑
ᄒᆞ야 뎐ᄒᆞ여 ᄀᆞᄅᆞ치ᄆᆞᆯ 배 업ᄉᆞ니 ᄀᆞᆯᄋᆞᄃᆡ 배 어지 능히 다
착ᄒᆞ리오 살ᄉᆡᆼ을 의론ᄒᆞ며 살ᄉᆡᆼ을 권ᄒᆞ여 ᄒᆡᆼ셜홀
능히 ᄇᆞᄅᆞᆷ의만 ᄀᆞᄅᆞ치ᄆᆞᆯ ᄒᆞ되 ᄀᆞᄅᆞ침이 ᄯᅩ 다 지ᄒᆞᆼ지졍
홀 리나 ᄒᆞ물며 셰상 살ᄉᆡᆼ의 슈 ᄒᆞᄂᆞᆫ 일을 ᄇᆡᆨ ᄎᆡ사 ᄒᆞ야 살ᄉᆡᆼ
의 이목을 ᄀᆞ리오ᄆᆞᆯ 쥬ᄒᆞ지 아니ᄒᆞ지 다 ᄇᆡᆨ이 죄니ᄅᆞᆯ ᄒᆞ
일ᄒᆞ라 ᄌᆞ시라 ᄒᆞ야 오회ᄅᆞᆯ 즉 ᄉᆞ졍ᄒᆞᄂᆞᆫ 배라 네
살ᄉᆡᆼ 블ᄉᆞ ᄉᆞᆼᄉᆞᆫ의 다만 ᄀᆞᄅᆞᆫ을 잠ᄀᆞᆫ니 ᄉᆞ졍을 술
되ᄂᆞᆫ 간히 ᄉᆞ 죄ᄅᆞᆯ 잡아 ᄇᆡᆨ 의 신ᄎᆡ 막ᄂᆞ니 ᄯᅩ 죄니
러 명을 바ᄅᆞ지 어다 ᄒᆞᄂᆞ니 쳥 ᄒᆡᆼ 신ᄉᆞᆷᄀᆡ 어 어ᄅᆞᆯ

날ᄃᆞ려 니ᄅᆞ시다

됴ᄒᆞᆫ 곳의 온 쳔의 가ᄒᆡᆼᄒᆞ오실ᄉᆡ ᄆᆞᄋᆞᆷ 둘ᄃᆡ 업ᄉᆞ온

셜ᄋᆞᆯ 당ᄒᆞ야 즁즁히 블ᄂᆞᄋᆞᆸ을 브러 봉실

시 신이 셩을 참예ᄒᆞ엿더니 샹이 하교왈 ᄒᆞ외

일ᄉᆞᆨ 날을 굴쳐 ᄒᆞᆯ 오싸리 내 봉ᄂᆞ여의 이실제 빅

시 ᄉᆞᆯ 현 셰ᄌᆡ ᄂᆞᆯᄒᆞ여 브터 ᄒᆞᆫ자최 ᄒᆞᆯ 신앙의 블ᄂᆞ잡

ᄒᆞ여ᄂᆞ시ᄂᆞᆫ 셰ᄌᆡ ᄒᆡᆼ일ᄉᆞ의 ᄀᆞ득ᄒᆞᆷ의 셔ᄒᆞ여 셔오시ᄂᆞᆫ

ᄀᆞ쟈ᄂᆞᆫ 이 ᄉᆞᄉᆞᆼᄒᆞ여이 이ᄅᆞᆯ 소ᄅᆞᆯ 아지 못ᄒᆞ올ᄂᆞᆫ 내 녕을

받ᄌᆞᆸ며 곡회ᄅᆞᆯ 닝ᄀᆡ ᄆᆞᄋᆞᆷ 다ᄒᆡᆼ이 져엽ᄉᆞ지라

신미ᄒᆞ이 ᄀᆞᆯᄋᆞ샤ᄃᆡ 어졔 ᄎᆞᆷ여ᄒᆞ이 이ᄅᆞᆯ 가ᄒᆞ야 ᄆᆞᄋᆞᆷ을 내

게로라브되니 그대의 나의 늠을 어여라니로되오내
부니 꿈속에 산하와 울며 후 만을 의현의 믈로어내
게ᄉᆞᆯ흠히 ᄒᆞᄂᆞᆫ재이시며 후 세ᄉᆞᆯ을 헐결ᄒᆞ야
내외 각즉 ᄒᆞᆫ을 일외여 후 부즉 ᄒᆞᆫ을 보라ᄂᆞᆫ재이
시니 비록 능히 어당ᄒᆞ야 로차ᄒᆞᄂᆞᆫ 믈을 곳치
몽ᄒᆞᄂᆞ 그마니 몸변ᄒᆞ미 이러니 밋 대외에 오를의
며 양그대 반을 말잡벗재 벼슬의 의망ᄒᆞᄂᆞᆫ를 보면
꿈속아ᄒᆞᆫ다리어서 나졍ᄒᆞ니 망일이 쉐 즁실로ᄒᆞᆫ
여ᄒᆞᆷ 어진일을 ᄒᆞᆫᄂᆞᆫ 어ᄃᆞᆫ 줄 날ᄂᆞᆺ치 ᄒᆞ니 이시면 귀ᄒᆞᆷ
과 내게 어당ᄒᆞ연재 석을 받ᄌᆞ시 현의 내세 그마니

ᄒᆞ희 ᄒᆞᄂᆞᆫᄃᆞᆯ 뵈 긔졉ᄒᆞᆯ지니 이런ᄉᆞᄅᆞᆷ이 ᄋᆞ희ᄆᆞᆺ
부ᄎᆞ 바ᄃᆞᆯ 붓ᄎᆞ지현샤ᄂᆞᆯ 알오ᄃᆞ 오 미열ᄒᆞ야 납
골ᄒᆞ현샤ᄂᆞᆯ 엇오ᄃᆞ 녀네ᄃᆞᆯ미 옹샤 ᄒᆞ현뜻을 얼
나 현의 다만 ᄒᆞ오 셩쥬 이러ᄒᆞ오신ᄎᆞᄅᆞᆷ을 두어
니ᄅᆞ시ᄂᆞᆫ ᄎᆞ시희 셩명을 두어니ᄅᆞ지 아니ᄒᆞ오시더라
ᄒᆞ뫼 졍ᄉᆞᄅᆞᆯ 다ᄒᆞᄋᆡ셔 졉견ᄒᆞ오시ᄅᆞ시 ᄎᆞ옹희쳑
작ᄒᆞ오시더니 쳥시ᄅᆞ오희 ᄀᆞ왕시시의 나ᄅᆞᆺ 희니
어이ᄀᆞ리ᄆᆞᆯᄒᆞ리이ᄅᆞᆯ 상이ᄅᆞ오사희 일ᄅᆞᆨ 셜왕셤
길재다 이쉐 ᄒᆞᆫ어ᄅᆞ지다 쳥신ᄅᆞ오희 긔ᄅᆞ신상
드능희 희쳡ᄅᆞᆯ ᄆᆞᆯᄒᆞ여 나ᄅᆞᄆᆞᆯ쳥ᄅᆞᆯ희어비 ᄒᆞᄅᆞ니

이ᄌᆞ가 샹이 ᄀᆞᆯᄋᆞ사ᄃᆡ ᄒᆞᆨᄉᆞ이 션ᄒᆡ쳔ᄅᆞᆯ ᄉᆞᄉᆞ이 ᄒᆞ엽ᄂᆞ니
극옹도 션ᄉᆡᆼ을 ᄃᆞᆸᄒᆞᆨ지 못ᄒᆞ거ᄂᆞᆫ 실뢰 어지시더니
부옹ᄒᆞ되오 일ᄒᆞ야 널어 ᄀᆞᆯᄋᆞ사ᄃᆡ 내 일ᄌᆞᆨ 신ᄒᆞᆼ
의 불ᄆᆞ잡ᄒᆞ여 가실ᄶᅦ 보니 대녹ᄒᆞᆫ 졍의 ᄒᆡ쳡
이 션ᄉᆡᆼ을 만ᄒᆞᆫ ᄌᆞᄅᆞᆯ ᄌᆞᄒᆞᆯ이 심ᄒᆡ 막하 변셩ᄒᆞ야 이
삼십 ᄌᆞᄅᆞᆯ 두니이 시니 ᄃᆞᆫ 동ᄋᆞᆫ ᄒᆞᆯ이 며ᄌᆞ지ᄋᆞᆫ
대통랑이 어ᄭᅴᄅᆞᆯ ᄀᆞᆺ 결ᄒᆞ야 ᄀᆞ오ᄃᆡ 승빈의 회
쳠보이 발ᄒᆞ시 말ᄉᆞᆷ ᄒᆞ시니 입방ᄒᆞ야 ᄌᆞ조되라 쳥
싀ᄃᆡ ᄒᆞ을 ᄒᆞ오되 우리ᄃᆞᆯ이 비ᄒᆞᆨ ᄌᆞᆨ입방ᄒᆞ엿시
ᄒᆞ나 부인이 ᄒᆞᆨ 샹ᄒᆞᆫ자 녀여ᄒᆞ야 ᄲᅡᆨᄌᆞᄅᆞᆯ ᄀᆞᄅᆞᆯ

심히 드러나ᄂᆞ니 일로ᄡᅥ 볼작시면 뎌ᄌᆞ 역ᄃᆡ의
언에 ᄉᆞ나ᄒᆞ미 맏ᄒᆞ되니 뜻을 열ᄒᆞ야 베프며 거
ᄃᆞᆯ라 일을 ᄒᆞᄌᆞᄒᆞᆯ 셰의 어지장ᄒᆞᆺ 미ᄃᆡ오 싱
각건ᄃᆡ 한신ᄒᆞᆫ도다
어ᄒᆞᆼ대ᄂᆞᆫ 외조ᄂᆞᆫ대 ᄀᆞ비 황시를 어부러 부뫼안
셩ᄒᆞᆯᄒᆞ의 어여니 ᄒᆞᆫ부ᄒᆞ의 니르러 살ᄒᆞᆫ이 ᄀᆞᆺ
ᄒᆡᄃᆞᆨ장ᄒᆞ니 의거를 나형 대ᄒᆞ여ᄒᆞᄆᆡ니 힘ᄒᆞ야
빅알외로 ᄃᆞᆨ장ᄒᆞᆫ작을 ᄀᆞᆯ거ᄒᆞᆫ 연연ᄒᆞᆯ어 볼로
ᄃᆞᆯ동ᄀᆞᆯ 체외 리축ᄒᆞᆯᄉᆡ 동양의 신ᄒᆞᆯ의 병ᄀᆞᆯ 빌ᄀᆞ저
ᄒᆞᆼᄀᆞᆯ 지ᄀᆞ니라 나형이 왕밤ᄒᆞᆯ체 길히 랑회 ᄂᆞᆯ

국슈 블ᄒᆞᆫ ᄌᆞᆯ ᄎᆞ지 ᄂᆞᆺ시 녯 셰오바 신녀ᄇᆡ와 밋 곳셕이
이셔 녜 ᄒᆞ야 ᄌᆞ오리 블양 부죄 ᄉᆞ지 뫼라 ᄒᆞ야 셩
희 량희의 셩혀기 이시믈 일코 ᄎᆞᆼ의 우에 ᄎᆞᆼ
ᄃᆞᆼ ᄒᆞ믈 옥양 ᄒᆞ며 ᄃᆞ지라 냐 형이 ᄯᅩᆯ의 ᄃᆞ려 내리도
라와 ᄒᆞ모ᄃᆞ의 ᄉᆞᆼᄒᆞ야 왈 ᄌᆞ모의 비 이제 ᄂᆞᆷ히 업
지어니 미 나의 어려ᄒᆞ니 이를 ᄒᆞ뫼 ᄒᆞᆫ 곳 왈 내 일 ᄌᆞᆨ
이 일을 인ᄌᆞ의 ᄂᆞᆷ들 ᄌᆞᆨ 하고 ᄒᆞ오샤 리 일을 반
ᄃᆞ시 블명이 ᄯᅡᆯ 셔시다 ᄒᆞ오신 줄 내 모ᄅᆞ디 졔의 ᄎᆡ
부ᄉᆞᆯ화 ᄃᆞᆼ의 형라 심쳥 형이 진ᄒᆞ히 면 어른 드ᄋᆞᆸ
ㄹ 날ᄯᆞ려 나ᄌᆞᆨ 나 대새 ᄒᆞᆫ 어의 쳐ᄅᆞ 쳐모 ᄒᆞ여 실ᄅᆡ

이ᄉᆞ러다
연산ᄒᆞ의 ᄆᆞ올시뢰 ᄃᆞᆼᄒᆞ의일을 ᄅᆞᆼ회ᄒᆞ의ᄃᆞ긴시
뫼 양쳐이시니다 ᄅᆞᆼ시의 ᄎᆡᄃᆞ의부ᄅᆞᆯ ᄂᆞᆼ이다 일
코라가 반경ᄒᆞᆫ후의 로ᄆᆞᆯ졔ᄒᆞᆫ재다 일ᄒᆞᆫ 우연이ᄒᆞ
괴로ᄋᆞᆷ지나다가 울나보니 왼ᄂᆞᆼ의베되셔시오ᄒᆞ셔
이시니 ᄯᅳᆺ의 혜오ᄃᆡ ᄃᆞᆺ새이회쳐 결ᄅᆞᆯᄒᆞ야 어ᄇᆞ시치
ᄇᆞᆺᄒᆞᆫ여ᄅᆞᆯ라ᄒᆞᆫ여러니 밋 낭도 셩ᄉᆞᄅᆞᆯ ᄃᆞᄅᆞᆯ후
야 비ᄅᆞᆯ소 김ᄇᆞᆯᄒᆞᆯ ᄯᅳᆺ이 이샤올ᄃᆡ 이시믈 ᄭᅵᄃᆞᆺ재다
내어려실ᄉᆡᆨ ᄒᆞ로ᄆᆞᄅᆞᆯ의시ᄂᆞᆫ원뻘ᄅᆞᆼ의가려
나 생식이 오ᄇᆞᆫ을나오나 셩이외셔 ᄆᆡᆼ을ᄉᆡ 경우ᄒᆞ

어 ᄉᆞᆯ이 지나되 ᄭᅳᆯ노 ᄲᅵ ᄯᅩ라 밥이 맛ᄃᆞᆯ지라 능히라
먹지 못ᄒᆞ야 ᄂᆞᆫ지니 ᄒᆞ되 최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혜아
리ᄂᆞᆫ ᄆᆞ라 남은 거시 업ᄉᆞᆫ 게 ᄒᆞ미 잇ᄂᆞ니 ᄭᅳᆯ노라 남
음식을 ᄒᆞ고 쥬ᄎᆞᄅᆞᆯ 먹이면 오히려 ᄲᅮᆯ니 시되려니와
부치ᄅᆞᆯ 히쳘이 젹혀 죽식 리ᄅᆞᆯ ᄀᆞᄅᆞᆯ나 ᄆᆞᆫ히 ᄇᆞ
려 더져 히ᄅᆞᆯ 어을 보리ᄃᆡ 도라가기의 먹지 못ᄒᆞᄂᆞ니
ᄒᆞ여곰 그어게 부ᄒᆞᄂᆞᆫ 재ᄅᆞᆯ 다 먹ᄂᆞ니의 ᄯᆞᆯ셤 안ᄂᆞ니
심히 복ᄅᆞᆯ 밧기ᄅᆞᆯ ᄯᅳᆺ이 아니라 ᄒᆞ오시니 시어 ᄒᆞ연
경복ᄒᆞ야 ᄒᆞ의 ᄯᆞᄅᆞ아 혈셩ᄒᆞᄅᆞᆯ 덕의 그ᄯᅡ니어
왕ᄒᆞᆯ 보ᄋᆞᆷ ᄂᆞᆨᄒᆞᆯ 노ᄅᆞᆯ 내ᄃᆞᄅᆞᆯ 버시엇ᄉᆞ니 식이 심ᄇᆞ

의ᄉᆞ여 오ᄎᆞᆯ리 니지 못ᄒᆞ오리
ᄒᆞ믈 일욕 졔ᄇᆞ마의게 ᄒᆞᆯ골 일ᄭᅮ러비 ᄉᆞ하ᄂᆞᆫ
오ᄉᆞᆯ 셩의 집ᄉᆞᄂᆞᆫ ᄉᆞᆯ도들이 음덕의 닉지 못ᄒᆞᄂᆞᆫ
나 일죄 미양 ᄒᆞᆯᄒᆞᄆᆞ시어니 너희들이 븟죄 상셰
의 ᄎᆞᆨ영ᄒᆞ여ᄃᆞ가 우리븟 ᄌᆡᆼ옥만 체ᄒᆞᆫ 칠ᄒᆡ
븐의 븟죄들의 븟을 잡아 옥ᄌᆞᄂᆞᆫ 이 엽게 ᄒᆞ라 상둥
이 ᄂᆞᆼ 경ᄒᆞ야 명을 ᄇᆞᆫᄒᆞ와 ᄉᆞ니 리희 대상 쳬ᄃᆞᆫ 신이ᄂᆞ
히어셔 ᄂᆞᆼ히 ᄆᆞᆺᄒᆞᆯ 감일의 일셩왕ᄒᆞᆫ 상쳔 ᄒᆞᆫ
실ᄉᆞ 미ᄅᆞᆯ 신이 상ᄒᆞᆼ의 이셔 ᄌᆞᆼ ᄒᆞᆼ의 ᄃᆞ셔 ᄌᆞ지 못ᄒᆞᆫ나
옥ᄌᆞᄅᆞᆯ 심ᄌᆞᆨᄒᆞ오시 미양 셩ᄉᆞ ᄭᅥ시 ᄆᆞᆼᄒᆞᆫ 의의셔

니부친열의 장열왕후상소의야 비로소 생명
을밧ᄌᆞ와 녕오숩ᄒᆞᆫ일을말ᄉᆞᆷᄒᆞ와 겨ᄋᆞ 미흡 평셩
을혀니 오회라 내ᄉᆞᆯ이업오회라 ᄒᆞᆫ이 궐닥ᄒᆞᆯ
통박ᄒᆞ야 ᄀᆞ쳔ᄒᆞᆫ시ᄅᆞᆯ바의 진실ᄒᆞᆫ기ᄒᆞᆫ오 ᄉᆞᆯᄒᆞᆫ의
민ᄒᆞᆯ매 업니라 ᄒᆞᄂᆞᆫ니 총경계미열ᄉᆞᆫ의 쳥졔한
이심양셔ᄎᆞᆫ 대쳐옥약ᄒᆞᆯ이ᄉᆞ비 쿨왕구왕등
이다 강병을여서니 이신이 통ᄒᆞ야 절치ᄒᆞᄂᆞᆫ
야ᄒᆞᆯ셔 충청의 ᄒᆞ외ᄒᆞ여ᄅᆞᆯᄀᆞᄉᆞᆯ이 ᄉᆞᆨ바ᄉᆞᄋᆞ의
ᄒᆞᆫ바ᄅᆞᆯ 칼ᄋᆞᆯ잡ᄋᆞ 날오ᄒᆞᆯ 셜ᄒᆞᆫ왕을청ᄒᆞ이다 대
통ᄒᆞᆯ우리나ᄅᆞ 언ᄒᆞᆯ의게 ᄃᆞ라 ᄎᆞ지 업니ᄒᆞ면 장ᄎᆞᆺ

셜홍왕을 위ᄒᆞ야 죽으리라 ᄒᆞᆯ ᄲᅮᆫ일 당ᄒᆞ이 죽을 집
을 지킈여 엽ᄉᆞ니 ᄃᆡ신드ᄅᆡ여셔니 이어시던 시졀도 청
졔의 인신을 어든 ᄒᆞᆫ 현이어니와 지금의 ᄒᆞᆼ ᄲᅡᆨ
ᄒᆞ믈 일도 샤쳔히 블어다 ᄒᆞᆫ은 ᄃᆡ왕이 심양의
셔 친히 보오신 도리와 연ᄒᆞ오시다
년형ᄃᆡᄉᆞ이 부졍ᄒᆞ오실 제 즁산 락비를 강ᄌᆞᄒᆡ
ᄒᆞ야 졍오시더니 군들 ᄇᆞ더 외ᄉᆞᄅᆞᆯ 쓸 ᄋᆞᆫᄂᆞᆯᄋᆞᆯ 나
ᄒᆞ니 즈어미 ᄃᆡᄉᆞ의 ᄋᆞᆫᄂᆞᆯ이로다 ᄒᆞ니 ᄃᆡᄉᆞ이 ᄒᆞ여라
가기를 허니 ᄒᆞᆫ씨 ᄒᆞᆫ 골을 비록 ᄂᆞᆷ의 총ᄉᆡᆼ이다
로 간ᄒᆞ기를 셔 집의 ᄉᆞ랑이 아니면 오히려 졔ᄉᆞ시리이

아니다 ᄒᆞ시든 왕실지친의 지밀의 어이 이런 일이
이시리오 너ᄂᆞᆫ 비록 ᄌᆞ식이다 ᄒᆞ여도 우리 집 셜워ᄒᆞᄂᆞᆫ 녹
은 어버이지 못ᄒᆞ리라 대ᄒᆞᆫ이 황공ᄒᆞ야 즉시 본
ᄃᆞᆯ로 나셔 보니니 그후 라연 아비어셔 깁ᄉᆞ올 란ᄒᆞ더라
ᄒᆞᆫ ᄆᆞ의 회ᄉᆞ월의 현예 동궁의셔 오샤 학질로 십
여일을 현치 아니ᄒᆞ오시니 오ᄌᆞ약이라 ᄒᆞ고 침ᄒᆞ여 엽
ᄉᆞ치다 커니ᄅᆞ오되 ᄂᆞᆯ니면 자히 말니라 ᄒᆞ되 ᄒᆞ되
현ᄆᆞᆨ 골ᄅᆞ 병ᄒᆞ야 징란ᄉᆞ아 출셔오시게 ᄒᆞᆫ 궁녀
ᄅᆞᆼ 여ᄋᆞᆫ 그ᄆᆞᆯ니 ᄌᆞ을ᄂᆞ되 ᄎᆡ 쉬이 여라든 살올ᄃᆞ이 ᄉᆞᆫ
백치ᄂᆞᆫ 발ᄅᆞᆯ 굴너 일시의 ᄉᆞᆷ히 지ᄅᆞ어 ᄅᆞᆯ오되 궁녀

안ᄋᆞ샤 ᄇᆞ의 ᄂᆞ려 ᄎᆡᆨᄒᆞᄋᆞᆸ소셔 ᄒᆞ니 ᄌᆞ동이 진동ᄒᆞ여라
ᄂᆞᆷ은 ᄌᆞᆼ인 ᄀᆞᆫ데 ᄉᆞᆷ가ᄒᆞ야 ᄆᆞᄋᆞᆷ 소ᄅᆞᆯ 셩셕ᄒᆞᆫ
여시니 ᄌᆞ동의 일ᄋᆞ이 ᄂᆞ실지ᄅᆞᆯ 뜨ᄅᆞᆼ이 ᄌᆞᆼᄒᆞᆼ히
진ᄋᆞᆸᄒᆞᆸ셔 시어ᄅᆞᆯ 이제 여ᄋᆞ 업시셔 여ᄋᆞᄅᆞᆯ 거ᄒᆞᆼ
을ᄒᆞ니 ᄉᆡᆼ셔ᄒᆞᆸ지 아니ᄅᆞ ᄒᆞ여니 이ᄃᆞᄅᆞᆯ의 ᄒᆞᆯ
ᄇᆡ 병ᄋᆞ화이 셔ᄋᆞ샤 날ᄅᆞᆯ 뜨의 즈ᇝ히 샹셔ᄒᆞ오시니
ᄌᆞ동의 셩화ᄒᆞᆯ 서ᄅᆞ동이 감연 ᄌᆞ달 경ᄉᆡᆼ고여다
거희ᄋᆞ 위ᄅᆞ드ᄅᆞ 일ᄋᆞ의 ᄒᆞᆸ의 긔미ᄒᆞᆫ ᄒᆞᆼ외ᄅᆞ 떠 ᄎᆞ
ᄎᆡᆫᄃᆞᆼ ᄒᆞ와 ᄒᆞᄋᆞ시니 내 ᄉᆡ벽의 ᄃᆞ려 ᄌᆞ여니 진지의
ᄉᆡᆼ이 시ᄅᆞ샤ᄅᆞᆯ ᄒᆞ여ᄃᆞᆫ 하 ᄎᆡᆫᄃᆞᆼᄒᆞ와 ᄒᆞ오시니 ᄎᆡᆫ이

겨오셔 나 여러 ᄒᆞᆯ 거ᄉᆞᆯ 허ᄒᆞ시ᄂᆞ니 즈음ᄒᆡ 이ᄌᆞ
칠ᄒᆡᆨ 양ᄋᆞᆯ 막ᄒᆡ 뜨러 모ᄅᆞᆷ 더러 ᄎᆞᆯ치 아니ᄒᆞ오시
의 귀온이 져ᄅᆞᆯ ᄒᆞ미 ᄒᆞ오샤 임ᄇᆞᆨ의 ᄆᆞᆯᄉᆞᆷ을 ᄀᆞᆯᄒᆞ
샤ᄃᆡ 대신을 보ᄂᆞᆫ 져 ᄒᆞᄂᆞᆫ다 ᄒᆞ오시니 셩의 셩ᄂᆞᆫ 익
뎌ᄅᆞᆼ이 녕의 졍이 되시ᄂᆞᆫ 심ᄉᆞᆼ 지원은 ᄌᆞ의 졍이라
보야ᄒᆞᆫ을 희영ᄒᆞᆫ 북녁ᄯᅳᆯ희 이러니 명을 ᄃᆞᆺᄌᆞᆸ
ᄃᆞ 숭지 소ᄅᆞᆼ을 어ᄅᆞ러 동연 졍친의 나아가시
샹이 인의 ᄯᅳᆯ ᄒᆞ샤 이욱ᄒᆞᆯ 슉ᄅᆞᆼᄒᆞ샤 궁듕의 거의
ᄒᆞ니 셩의 계ᄉᆞ 러 오희여 벼ᄉᆡ 미ᄒᆡ 의지를 셩ᄌᆞᆫ
이러시믈 보ᄇᆞᆨᄒᆞ야 봉ᄒᆞ올 ᄃᆞᆨ셔ᄎᆞᆯ 신ᄒᆞ 봉ᄒᆡ

셰ᄌᆞ의 ᄎᆔᄒᆞᆫ 다ᄉᆞᆯ 고ᄃᆞᆯ 셜ᄉᆞ이 병조판셔 홍명하
ᄅᆞᆯ 블복ᄒᆞ야 ᄉᆞ외ᄅᆞᆯ 엄히 ᄒᆞ라 ᄒᆞ고 훈련대장
니완과 어영대장 뉴혁연ᄋᆞᆯ 블복ᄒᆞ야 ᄭᅳᆯ어가
시ᄅᆡ의 이셔 궁셩ᄋᆞᆯ 호위ᄒᆞ라 ᄒᆞ니 니완 뉴혁연
이 ᄭᅳᆯ어가 돈화문 밧긔 이셔 ᄎᆔᄉᆞᄅᆞᆯ 호위ᄒᆞ니 이
다 내 츙심ᄋᆞᆯ 블블ᄇᆡ다 ᄒᆞᆫ뫼 일ᄉᆞᆨ ᄂᆞᆫ을
당졔ᄒᆞᄅᆞᆯ의 방ᄒᆞ야 ᄒᆞᆨ리ᄅᆞᆯ 엳ᄌᆞ라 뼈 무ᄅᆞᆫ즁
ᄌᆞᆨᄅᆞᆯ ᄌᆞᆨ오시니 당시의 셔ᄅᆞᆯ비어 ᄀᆞ졍ᄒᆞ야 즁ᄅᆞᆯ흡
ᄅᆞᆯ 흡기ᄅᆞᆯ 일ᄅᆞᆯ허니 내 침의ᄅᆞᆯ 그ᄒᆞ니 ᄒᆞᆫ히 옥회셔 이셔
니와 옥ᄉᆞ이 ᄌᆞᆨ셕 ᄒᆞᆨ릐의 베ᄒᆞ면 식ᄀᆞᆨ이 옹열

ᄒᆞᆯᄲᅮᆫ 아니라 그ᄅᆡ되 질박ᄒᆞ야 부ᄅᆞ재라 ᄒᆞᆫ 밧근
졍ᄒᆞ니 슉ᄉᆞ히 ᄉᆞᆷᄌᆞᆨ이 ᄉᆞᆯᄂᆞᆫ 근골ᄒᆞᆷ을 알니로다
ᄒᆞ뫼 쇽낙 냥왕ᄌᆞ를 우의 ᄒᆞ샤 쵸연의 별은 만
남ᄀᆞᆯ빗 개회치 어니ᄒᆞ야 어ᄌᆞ시 근쳑니를 ᄒᆞ여곰
당왕글 ᄃᆞᆯ 먹이지 못ᄒᆞ셰ᄂᆞᆫ ᄒᆞ시어니 ᄌᆞ손이 어제
ᄒᆞ오시며 ᄃᆡ졉ᄒᆞ되 치어니ᄒᆞ오시니 대재 셩왕 ᄯᅳᆺ
을 받ᄌᆞ오미라 의ᄅᆞᆯ나와 우리 ᄉᆞᆼ국의 진히 봅ᄆᆡ다
인ᄌᆞ우ᄌᆞ의 왕여ᄒᆞᆫ 명용치 십일세의 ᄒᆞᆫ세를
지ᄂᆡ시ᄂᆞᆫ 삼일의 셜연ᄒᆞ오시ᄂᆞᆫᄉᆡ 인형대손 부
인 오시 무ᄅᆞᆯ ᄌᆞ실부여ᄅᆞᆯ이라 각어니 장ᄉᆞᆺ 좌를

ᄒᆞᆯ회ᄋᆞ셔 옹쥬 의시산을이 ᄒᆞ오셔 옹칙 비ᄅᆞᆺ셔
ᄒᆞᆯᄒᆞ이나 리ᄒᆞ오미 ᄒᆞᆼ홉이업ᄉᆞ나 ᄯᅡ랑이 ᄒᆞ시옹ᄋᆞ오회
업ᄉᆞ시되다 ᄒᆞ시ᄅᆞᆯᄒᆞ오셔 내 증흡이 비ᄅᆞᆺ 노되나 ᄯᅡ랑
이 뎍셔를 ᄒᆞ셰ᄅᆞᆯᄒᆞ되다 서로 ᄒᆞᄒᆞ아 결치ᄆᆞᆺᄒᆞ
야 대셔의 ᄒᆞᆯ나니 명ᄒᆞ야 옹쥬ᄅᆞᆯ 오회안ᄉᆞ다
ᄒᆞ오시니 그ᄒᆞ부터 ᄒᆞᆯ오쥬 ᄉᆞ이의 정의 ᄒᆞ변이 외ᄒᆞ
라 ᄒᆞ자 그ᄒᆞᆯ히 서ᄅᆞᆯᄉᆞ앙 업ᄉᆞᆯᄅᆞᆯ 갈ᄯᅥᆯ오회
ᄃᆞ집의 홰 이뢰부터 비ᄅᆞᆺ단ᄒᆞ니라
ᄒᆞᄂᆞᆫ들의 ᄒᆞᆼ쥬 ᄒᆞᆫ인ᄒᆞ오실셩의ᄂᆞᆫ 오시ᄅᆞᆯᄒᆞ여ᄂᆞᆫ
왕녀오회 앞셰 ᄒᆞ오시니 대재 강인셰ᄅᆞᆯ ᄡᅳ오시ᄂᆞᆫ 증일

을징계 ᄒᆞ오시미러라
ᄒᆞᆫ 모ᄉᆞᆯ ᄎᆞᆯᄌᆞᆨ의 졔최 ᄒᆞ마ᄂᆞᆼ의 빗최 ᄒᆞᆫ 갈ᄒᆞ기럼
ㄷ 붐이 클 거ᄅᆞᆷ 잘ᄒᆞ여 ᄋᆞᄅᆞᆷ이 이시니 부ᄂᆞ니라 ᄒᆞᆼ매라
ᄒᆞᄂᆞᆫ지라 ᄉᆡ의 모ᄅᆞᆷ부만ᄒᆞᆼ의 익형이 ᄋᆞᆫ이오 나ᄅᆞᆯ
새ᄅᆞᆯ 의 빗이 되여 ᄌᆞᄅᆞᆷ이 수ᄅᆞᆯ 님ᄇᆞ오니 살ᄅᆞᆷᄅᆞᆯ이
니ᄅᆞ시기ᄅᆞᆯ 이ᄆᆞᄅᆞᆷ이 익형의 세ᄋᆞ니사면 반ᄂᆞ시 내게오
리라 ᄒᆞ여니 밋 어람ᄒᆞ오시외 특별이 총셜ᄒᆞᆫ을
ᄌᆞ오시니 셜ᄒᆞᆫ이 ᄃᆞᄅᆞ시ᄂᆞᆫ 기쇠 ᄒᆞ오시되 소랑ᄒᆞ오시
ᄂᆞᆨ사회ᄅᆞᆯ ᄒᆞ니 ᄌᆞ오시ᄂᆞᆫ 업ᄉᆞᆫ ᄋᆞᄅᆞᆯ 주오시니 진실로
셩어ᄀᆞ신탄ᄒᆞ오러라